

## IV. 保險産業의 展望

### 1. 保險産業 主要指標

#### 가. 收入保險料

- FY'98 보험산업 전체 收入保險料는 FY'97보다 15.1% 증가한 66조 7천 억원으로 전망됨.
  - 生命保險은 '97년 경기저점 통과 이후 경기회복 가시화 요인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내실경영 가속화에 따른 금융형 상품의 축소와 보장성보험의 수요 확충이라는 상반된 요인에 의거 전년대비 12.5% 증가한 47조 4천억원으로 전망됨.
  - 損害保險은 장기보험과 특종보험의 지속적 성장, 퇴직연금보험의 신규수요가 예상되나 개인연금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 자유요율제 적용, 시장개방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1.5%p 높은 21.8%가 증가한 19조 3천억원으로 전망됨.
- FY'97 보험산업 전체 收入保險料는 58조원으로 FY'96에 비해 12.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한 42조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종목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

지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FY'96 대비 20.3% 증가한 15조 9천억원으로 추정됨.

<표 IV-1> 年度別 收入保險料 및 增加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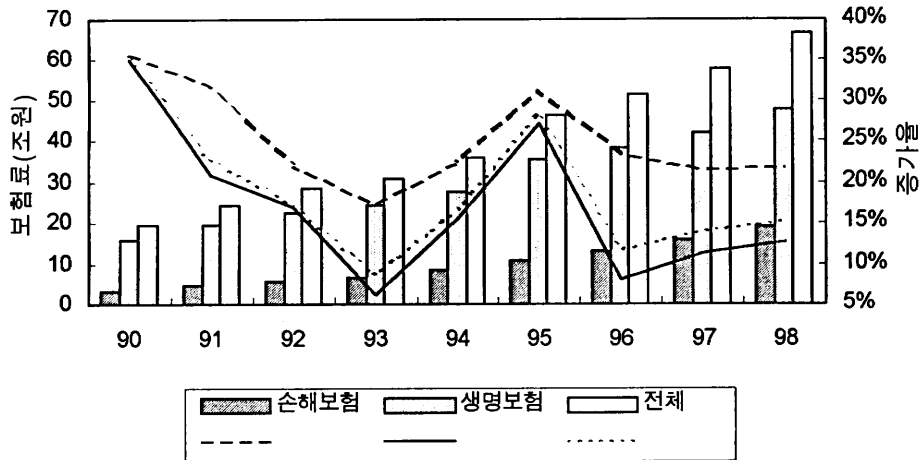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구 분        | '80년대<br>연평균 | '90년대<br>연평균 | FY'91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br>(P)   | FY'98<br>(E)   |
|------------|--------------|--------------|----------------|----------------|---------------|----------------|----------------|----------------|----------------|----------------|
| 생 명<br>보 험 | (37.8)       | (14.5)       | 19.4<br>(20.8) | 22.6<br>(16.8) | 24.1<br>(6.2) | 27.7<br>(15.4) | 35.3<br>(27.2) | 38.2<br>(8.1)  | 42.1<br>(10.3) | 47.4<br>(12.5) |
| 손 해<br>보 험 | (24.6)       | (23.6)       | 4.7<br>(31.8)  | 5.7<br>(22.1)  | 6.7<br>(17.4) | 8.2<br>(22.2)  | 10.7<br>(31.2) | 13.2<br>(22.8) | 15.9<br>(20.3) | 19.3<br>(21.8) |
| 전 체        | (34.1)       | (16.5)       | 24.1<br>(22.8) | 28.3<br>(17.4) | 30.8<br>(8.5) | 35.9<br>(16.6) | 46.0<br>(28.1) | 51.4<br>(11.6) | 58.0<br>(12.9) | 66.7<br>(15.1) |

註: 1) '80년대는 '80~'89년, 90년대는 '90~'98임.

2) 상단은 收入保險料, 하단은 성장율임.

<그림 IV-1> 全體 收入保險料 規模 및 增加率 推移



## 나. 保險寄與度<sup>2)</sup>

- FY'98 保險寄與度は 收入保險料의 꾸준한 증가로 생명보험은 0.2%p 상승한 10.2%, 損害保險은 0.3%p 상승한 4.1%,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0.6%p 높아진 14.3%로 전망됨.
- FY'97 保險寄與度の 경우 생명보험은 10.0%, 손해보험은 3.8%,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FY'96에 비해 0.5%p 상승한 13.7%로 추정됨.

<표 IV-2> 年度別 保險寄與度 推移

(단위: %)

| 구 분              | '80년대<br>연평균 | '90년대<br>연평균 | FY'91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br>(P) | FY'98<br>(E) |
|------------------|--------------|--------------|-------|-------|-------|-------|-------|-------|--------------|--------------|
| 생<br>명<br>보<br>험 | 5.4          | 9.5          | 9.0   | 9.4   | 9.0   | 9.1   | 10.0  | 9.8   | 10.0         | 10.2         |
| 손<br>해<br>보<br>험 | 1.4          | 3.0          | 2.2   | 2.4   | 2.5   | 2.7   | 3.1   | 3.4   | 3.8          | 4.1          |
| 전<br>체           | 6.7          | 12.6         | 11.1  | 11.8  | 11.5  | 11.7  | 13.1  | 13.2  | 13.7         | 14.3         |

- 우리나라의 보험기여도는 1995년을 기준으로 세계 2위에 해당(1위 남아프리카 15.5%, 3위 일본 12.8%, 4위 스위스 10.5%)하며, 이러한 추이는 국내 보험산업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보험기여도(insurance penetration, 保險浸透度라고도 함)는 保險産業이 國民經濟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國內總生産(GDP)에 대한 收入保險料의 백분율로 나타냄.

## 다. 1人當 保險料

○ FY'98의 國民 1人當保險料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1,436,229 원으로 FY'97에 비해 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생명보험료는 9.2%, 손해보험료는 19.1% 증가할 것임.

- FY'97 1인당보험료는 1,260,264원으로 FY'96에 비해 1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생명보험은 11.4%, 손해보험은 2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IV-3> 年度別 1 人當 保險料 推移

(단위: 원)

| 구 분  | FY'91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생명보험 | 447,839 | 518,549 | 545,973 | 624,143 | 791,070   | 837,927   | 915,231   | 1,019,978 |
| 손해보험 | 108,035 | 130,732 | 152,117 | 184,239 | 240,784   | 289,681   | 345,033   | 416,250   |
| 전 체  | 555,874 | 649,281 | 698,089 | 808,482 | 1,031,853 | 1,127,608 | 1,260,264 | 1,436,229 |

○ 199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험밀도는 세계 15위(1위 일본, 2위 스위스, 3위 미국, 4위 네덜란드, 5위 프랑스)에 해당함.

## 라. 生·損保 構成比

○ FY'98 생·손보 구성비(收入保險料 기준)는 장기손해보험의 큰 폭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손해보험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71.0% : 29.0%로 전망됨.

- FY'97 구성비는 72.6% : 27.4%로 FY'96에 비해 손해보험의 비중이 1.7%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損害保險의 성장율이 '90년대 들어 生命保險 收入保險料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표 IV-4> 年度別 生·損保 構成比 推移

(단위: %)

| 구 분  | '80년대<br>연평균 | '90년대<br>연평균 | FY'91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br>(P) | FY'98<br>(E) |
|------|--------------|--------------|-------|-------|-------|-------|-------|-------|--------------|--------------|
| 생명보험 | 80.5         | 76.3         | 80.6  | 79.9  | 78.2  | 77.2  | 76.7  | 74.3  | 72.6         | 71.0         |
| 손해보험 | 19.5         | 23.7         | 19.4  | 20.1  | 21.8  | 22.8  | 23.3  | 25.7  | 27.4         | 29.0         |

註: 수입보험료 기준임.

## 마. 營業效率

- FY'98 生命保險 保險金支給率(總支給保險金/收入保險料)은 사망보험금의 증가세 지속과 生存保險의 보험금 및 환급금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보다 1.0%p 높은 68.0%로 영업효율이 조금 나빠질 전망이다.
- FY'97에는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의 생존보험금의 증가와 새가정복지보험 등의 생사혼합보험의 만기환급금 증가로 전년대비 2.7%p 높아진 67.0%로 FY'96에 비해 영업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98년 도입예정인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종업원퇴직보험 등 기존 계약이 은행 및 투신사와 같은 타금융권으로 이동하여 영업효율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FY'98 損害保險 損害率は 自動車保險의 사고율 감소와 내실경영 효과에 의해 전년대비 1.0%p 낮아진 79.7%로 추정되며, FY'97에는 일반손해보험종목에 대한 자유요율적용 및 요율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은 80.7%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표 IV-5> 年度別 營業效率의 推移

(단위: %)

| 구 분                       | FY'91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생명보험<br>보험금지급율            | 66.2  | 77.7  | 82.2  | 71.9  | 63.5  | 64.3  | 67.0     | 68.0     |
| 손해보험<br>손해율 <sup>1)</sup> | 83.0  | 87.9  | 91.9  | 85.2  | 79.8  | 78.6  | 80.7     | 79.7     |

註: 1)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경과손해율이며 97년과 98년은 5개년 가중이동평균한 수치임.

## 바. 總資產

- FY'98 보험산업 전체 總資產은 전년도보다 20.4% 증가한 138조 7천억 원으로 전망됨.
  - 生命保險 總資產은 국내경제의 회복 및 수입보험료의 성장에 따라 전년보다 20.0% 증가한 115조원으로 추정됨.
  - 損害保險 총자산은 收入保險料 증가와 損害率 안정에 힘입어 전년보다 22.2% 증가한 23조원으로 추정됨.

<표 IV-6> 年度別 總資産 및 增加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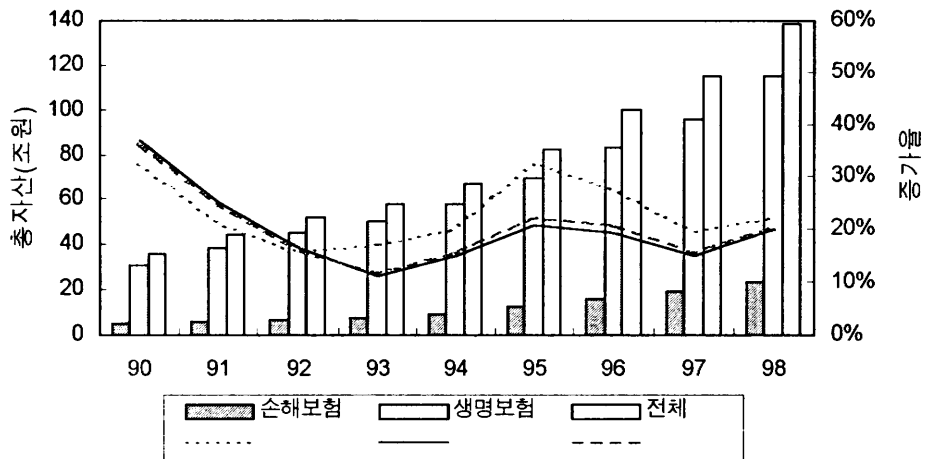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구 분  | FY'91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생명보험 | 38.8<br>(25.2) | 45.2<br>(16.3) | 50.2<br>(11.2) | 57.7<br>(14.9) | 69.7<br>(20.8) | 83.3<br>(19.5) | 95.8<br>(15.0)  | 115.0<br>(20.0) |
| 손해보험 | 5.9<br>(21.3)  | 6.8<br>(15.8)  | 7.9<br>(17.4)  | 9.6<br>(19.8)  | 12.7<br>(33.1) | 16.2<br>(27.7) | 19.4<br>(19.8)  | 23.7<br>(22.2)  |
| 전 체  | 44.7<br>(24.7) | 52.0<br>(16.2) | 58.1<br>(12.0) | 67.2<br>(15.6) | 82.4<br>(22.6) | 99.5<br>(20.8) | 115.2<br>(15.8) | 138.7<br>(20.4) |

註: 괄호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 FY'97 보험산업 총자산은 FY'96에 비해 15.8% 증가한 115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며, 生命保險은 15.0%, 損害保險은 19.8%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IV-2> 保險産業 總資産 增加率 推移



## 2. 生命保險

### 가. 綜合展望

#### (1) 收入保險料

○ FY'98 收入保險料 규모는 개인보험의 경우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정체 수준에 가까운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保障性保險 수요의 높은 증가세와 단체보험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 FY'97 대비 12.5% 증가한 47조 3,576억원 수준으로 전망됨.

- FY'97의 경우 전년도의 낮은 신장세(8.1%)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전략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金融型商品의 판매축소로 인해 전년보다 10.3% 증가한 42조 924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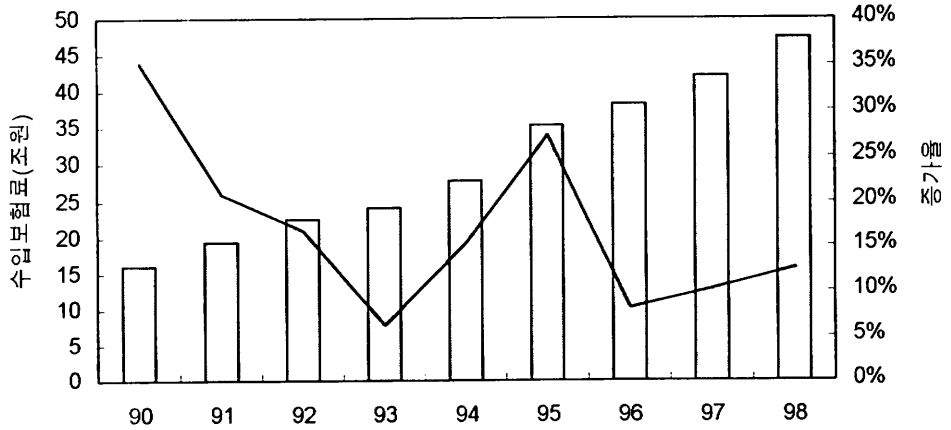
<표 IV-7> 生命保險種目別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개인보험    |      | 단체보험    |      | 생명보험전체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FY'92    | 184,185 | 21.7 | 42,229  | -0.3 | 226,414 | 16.8 |
| FY'93    | 198,874 | 8.0  | 41,660  | -1.3 | 240,534 | 6.2  |
| FY'94    | 226,380 | 13.8 | 51,115  | 22.7 | 277,495 | 15.4 |
| FY'95    | 274,936 | 21.4 | 77,944  | 52.5 | 352,880 | 27.2 |
| FY'96    | 275,809 | 0.3  | 105,825 | 35.8 | 381,634 | 8.1  |
| FY'97(P) | 296,580 | 7.5  | 124,344 | 17.5 | 420,924 | 10.3 |
| FY'98(E) | 321,877 | 8.5  | 151,699 | 21.9 | 473,576 | 12.5 |



<그림 IV-3> 生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2) 支給保險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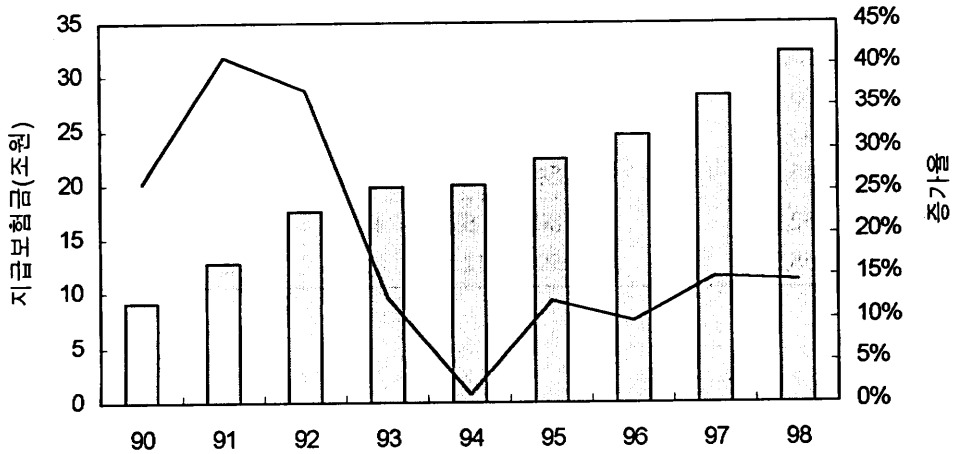
- FY'98 지급보험금은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의 保險金 증가세 지속, 생존보험의 還給金도 높은 수준이 이어져 FY'97에 비해서 14.3% 증가한 32조 2,1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97의 경우 總支給保險金은 FY'96에 비해서 14.8% 증가한 28조 1,867억원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추정은 특히 생존보험 중 주력상품인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의 생존보험금 증가세와 함께 동상품 및 생사혼합보험으로 대표되는 새가정복지보험의 만기환급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이외 단체보험부문의 보험금 및 환급금의 증가 예상에 기인한 것임.

<표 IV-8> 生命保險 種目別 總支給保險金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개인보험    |      | 단체보험   |       | 생명보험 전체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FY'92    | 136,065 | 27.6 | 39,815 | 83.7  | 175,880 | 37.0 |
| FY'93    | 155,294 | 14.1 | 42,536 | 6.8   | 197,830 | 12.5 |
| FY'94    | 162,575 | 4.7  | 37,180 | -12.6 | 199,755 | 1.0  |
| FY'95    | 167,791 | 3.2  | 56,203 | 51.2  | 223,994 | 12.1 |
| FY'96    | 182,555 | 8.8  | 62,896 | 11.9  | 245,451 | 9.6  |
| FY'97(P) | 207,178 | 13.5 | 74,689 | 18.8  | 281,867 | 14.8 |
| FY'98(E) | 232,355 | 12.2 | 89,840 | 20.3  | 322,195 | 14.3 |

<그림 IV-4> 生命保險 總支給保險金 推移



### (3) 事業費

- FY'98 전체 총사업비는 일부 생보사의 支給餘力 確保를 위한 사업비 절감 및 조직정비 등 내실경영에 의거 큰 폭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사업비 감소의 현실적인 한계와 타금융권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모집조직 재정비 등을 감안할 때, FY'97보다 11.9% 증가한 8조 6,105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97의 경우 전년도의 절대적인 사업비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2.3% 증가한 7조 6,923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표 IV-9> 年度別 生命保險 事業費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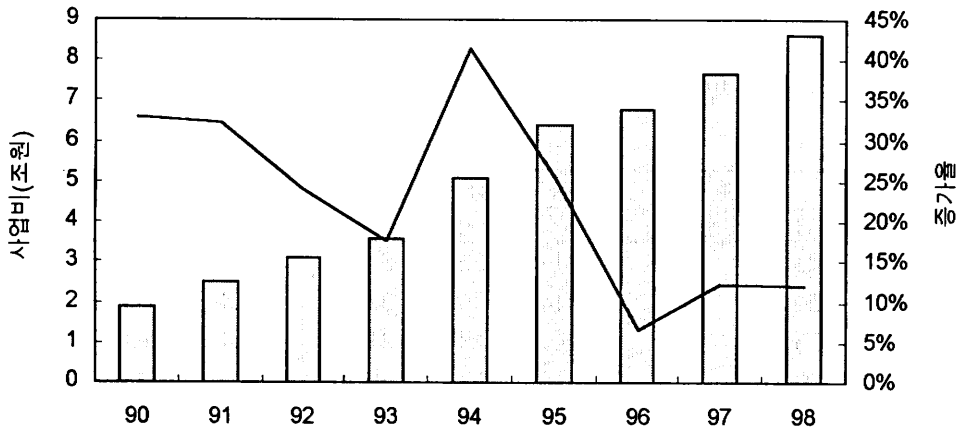
(단위: 억원, %)

| 구 분      | 신계약비   |      | 유지비    |      | 수금비   |      | 전체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FY'92    | 19,874 | 27.2 | 8,111  | 16.4 | 2,706 | 26.0 | 30,691 | 24.0 |
| FY'93    | 23,709 | 19.3 | 9,441  | 16.4 | 2,956 | 9.2  | 36,106 | 17.6 |
| FY'94    | 35,042 | 47.8 | 12,722 | 34.7 | 3,324 | 12.4 | 51,088 | 41.5 |
| FY'95    | 43,571 | 24.4 | 16,463 | 29.4 | 4,156 | 25.0 | 64,190 | 25.6 |
| FY'96    | 45,550 | 4.5  | 18,654 | 13.3 | 4,127 | -0.7 | 68,331 | 6.5  |
| FY'97(P) | 52,222 | 14.8 | 20,180 | 8.2  | 4,521 | 9.6  | 76,923 | 12.3 |
| FY'98(E) | 58,979 | 11.8 | 22,599 | 12.0 | 5,116 | 13.2 | 86,105 | 11.9 |

- 다만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해당 신설사들의 사업비절감 정도와 상품판매구성 비중 변화에 따른 사업비지출 규모 변동요인과 함께, 향후 초과사업비 이연상각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의 신규진입이 예상

되는 대기업집단계 신설사들의 공격적 경영에 따른 사업비지출 정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5> 生命保險 事業費 推移



## 나. 生命保險 種目別 展望

### (1) 個人保險

#### (가) 收入保險料

- FY'98 개인보험의 收入保險料는 보장성보험의 지속적인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5대기업의 생보사 진출 가시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FY'97 보다 8.5% 증가한 32조 1,877억원으로 전망됨.

- 한편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금융형상품의 판매 축소 및 전반적인 생

명보험 수요의 신규창출 한계와 노후복지연금보험 및 새가정복지보험 등 주력상품의 대체수요 확보 곤란 등 감소요인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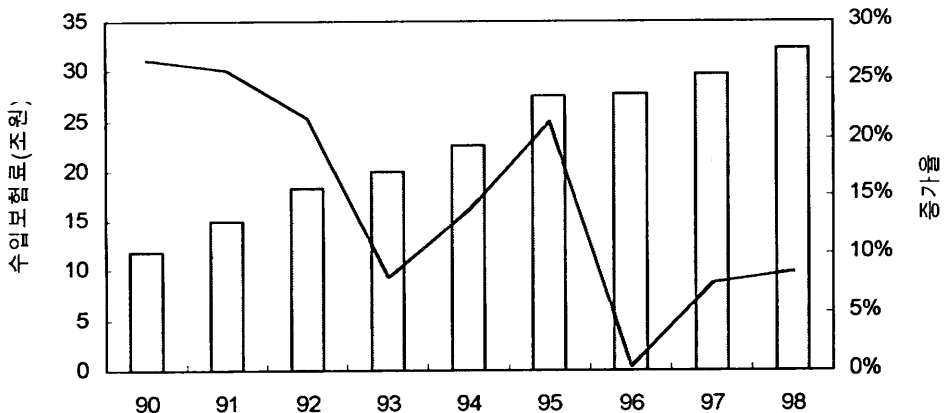
- FY'97의 경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금융저축능력 저하로 FY'96 대비 7.5% 증가한 29조 6,580억원으로 추정됨.

<표 IV-10> 個人保險 種目別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생존보험    |      | 사망보험   |       | 생사혼합보험 |       | 개인보험계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FY'92    | 121,114 | 22.4 | 8,214  | 112.5 | 54,857 | 13.0  | 184,185 | 21.7 |
| FY'93    | 150,506 | 24.3 | 14,514 | 76.7  | 33,854 | -38.3 | 198,874 | 8.0  |
| FY'94    | 173,240 | 15.1 | 21,241 | 46.3  | 31,899 | -9.4  | 226,380 | 13.8 |
| FY'95    | 193,310 | 11.6 | 32,426 | 52.7  | 49,200 | 54.2  | 274,936 | 21.4 |
| FY'96    | 187,226 | -3.1 | 47,819 | 47.5  | 40,764 | -17.1 | 275,809 | 0.3  |
| FY'97(P) | 190,373 | 1.7  | 63,609 | 33.0  | 42,598 | 4.5   | 296,580 | 7.5  |
| FY'98(E) | 192,414 | 1.1  | 85,715 | 34.8  | 43,748 | 2.7   | 321,877 | 8.5  |

<그림 IV-6> 個人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1) 生存保險

- FY'98 個人生存保險 收入保險料는 상대적인 저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FY'97 보다 1.1% 증가한 19조 2,414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생존보험의 주력상품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이 5년차가 됨에 따라 예상되는 환급사태와 함께 이에 상응한 신상품으로의 대체수요 창출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함.
  - 또한 지급능력 기준 미달 생보사들의 금융형상품 축소와 상대적인 보장성상품의 판매 주력 가능성에 따른 것임.
  - FY'97의 個人生存保險 收入保險料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겠지만 증가세는 미미하여 FY'96보다 1.7% 증가한 19조 373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정됨.
- 상품별로는 노후복지연금과 교육보험의 수요위축이 계속될 것이며, 반면에 개인연금부문을 중심으로 한 보유계약부문의 계속보험료 유입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다만 1997년도의 경기침체의 장기화, 부도 확산, 금융시장 불안 등의 제반 경제여건의 악화로 위축된 실질적인 개인저축 능력이 1998년 경기회복 가시화에 따른 회복정도와 타금융권의 저축상품과의 경쟁 심화 정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2) 死亡保險

- FY'98 個人死亡保險 收入保險料는 FY'97 보다 34.8% 증가한 8조 5,715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소득향상에 따른 레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각종 대형사고로 인한 위험담보 및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제고, 내실경영 차원의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높은 수요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FY'97의 경우에 FY'96 보다는 증가세가 낮지만 전년대비 33.0% 증가한 6조 3,609억원으로 추정됨.
- 최근 사망보험의 보장형태가 피보험자 자신에 대한 본인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생명보험의 위험담보 측면이 높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자동차·레저문화의 확산에 따른 재해사고 중점보장의 지속적인 수요증대는 향후 보장성보험의 收入保險料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손보 업무영역 겸업화추세에 따른 제3분야 보험, 즉 질병·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의 수요는 향후 생명보험의 새로운 신규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망보험부문의 수입보험료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선진국의 사례에서 상해보험부문의 높은 손해율로 인한 수지악화가 보험회사 경영악화를 가져온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고액화되고 있는 재해보장 질병보험의 경우를 포함하

여 향후에는 보험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보장성상품 판매 강화라는 회사경영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전체 생보산업의 수입보험료중 사망보험의 비중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3) 生死混合保險

- FY'98 收入保險料는 주력상품인 새가정복지보험의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수요회복 및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배당생사혼합보험의 높은 증가세로 인해 FY'97 수준과 비슷한 2.7%의 증가세를 기록하여 약 4조 3,748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97 收入保險料는 전년도의 급격한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FY'96보다 4.5% 증가한 4조 2,598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FY'97 生死混合保險의 경우 비과세저축상품의 수요회복이외에, 특히 만기 이후 중도생존급부금에 대해 고이율로 부리해 주는 무배당생사혼합보험의 높은 증가세로 인하여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 의외로 빠른 수요회복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시장 불안 등의 열악한 경제금융 환경으로 생보사 자산운용수익이 하락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비과세가계장기저축보험 및 무배당상품에 대한 역마진 및 한시적 판매에 따른 만기도래시 수지차 역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판매전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支給保險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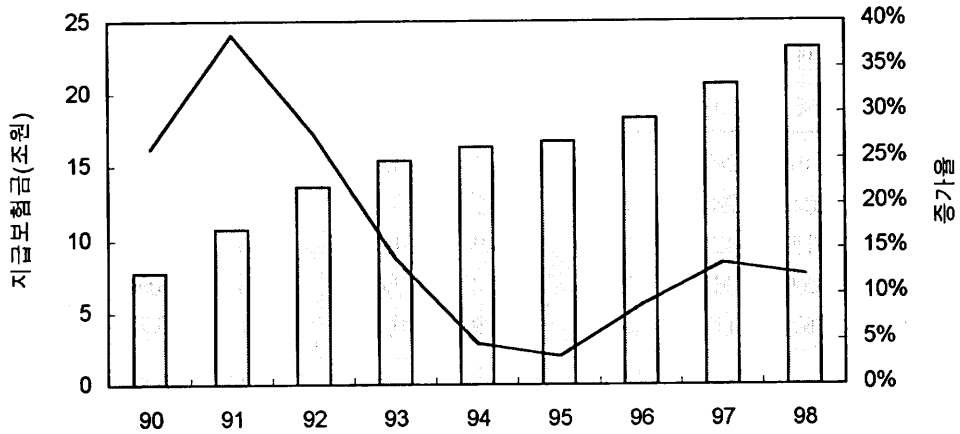
- FY'98 개인보험부문의 총지급보험금 규모는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FY'97 보다 12.2% 증가한 23조 2,3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97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이 감소세에서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의 지급보험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FY'96 보다 13.5% 증가한 20조 7,178억원으로 추정됨.
- 특히 사망보험의 보험금 고액화요인과 생존보험 주력상품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이 保險差益課稅 연장 이전에 단기저축성 상품으로 대량 판매한 상태이고, 또한 전통형상품의 경우도 고액의 재해 및 질병보장을 담보해주는 상품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은 높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IV-11> 個人保險 種目別 總支給保險金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생존보험    |      | 사망보험   |      | 생사혼합보험 |       | 개인보험 계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FY'92    | 85,307  | 66.5 | 1,454  | 56.7 | 49,304 | -9.5  | 136,065 | 27.6 |
| FY'93    | 100,947 | 18.3 | 2,402  | 65.2 | 51,945 | 5.4   | 155,294 | 14.1 |
| FY'94    | 120,204 | 19.1 | 3,990  | 66.1 | 38,381 | -26.1 | 162,575 | 4.7  |
| FY'95    | 127,832 | 6.3  | 6,545  | 64.0 | 33,414 | -12.9 | 167,791 | 3.2  |
| FY'96    | 141,021 | 10.3 | 10,015 | 53.0 | 31,519 | -5.7  | 182,555 | 8.8  |
| FY'97(P) | 162,002 | 14.8 | 13,370 | 33.5 | 31,806 | 0.9   | 207,178 | 13.5 |
| FY'98(E) | 183,506 | 13.3 | 15,491 | 15.7 | 33,358 | 4.8   | 232,355 | 12.2 |

<그림 IV-7> 個人保險 總支給保險金 推移



### 1) 保險金

○ FY'98에도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의 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금지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사혼합보험의 보험금지급 규모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판매확대에 따라 마이너스 증가세에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FY'97 대비 12.0% 증가한 2조 3,069억원으로 전망됨.

- FY'97 보험금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의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겠지만 여전히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부분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적으로는 FY'96 대비 9.9% 증가한 2조 594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IV-12> 個人保險 種目別 保險金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생존보험  |      | 사망보험  |      | 생사혼합보험 |       | 개인보험 계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FY'92    | 1,635 | 28.1 | 740   | 34.3 | 13,998 | -39.3 | 16,373 | -34.2 |
| FY'93    | 2,101 | 28.5 | 1,133 | 53.1 | 15,067 | 7.6   | 18,301 | 11.8  |
| FY'94    | 3,015 | 43.5 | 1,630 | 43.9 | 14,977 | -0.6  | 19,622 | 7.2   |
| FY'95    | 4,062 | 34.7 | 2,236 | 37.2 | 12,647 | -15.6 | 18,945 | -3.5  |
| FY'96    | 4,762 | 17.2 | 3,241 | 44.9 | 10,733 | -15.1 | 18,736 | 1.1   |
| FY'97(P) | 5,762 | 21.0 | 4,448 | 37.2 | 10,384 | -3.3  | 20,594 | 9.9   |
| FY'98(E) | 6,730 | 16.8 | 5,814 | 30.7 | 10,525 | 1.4   | 23,069 | 12.0  |

- 특히 지난 1995년 보험차익과세기간 연장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단기저축성상품 형태의 새가정복지보험의 집중적 판매에 따른 만기보험금 발생시점이 1998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부문의 보험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최근 高額保障형태의 상품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망보험과 재해 등 특화된 담보를 고액보장하는 전통적 연금보험의 판매 확대에 따라 보험금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FY'97에도 위험보장의 고액화에 따라 당분간 死亡保險 및 生存保險의 보험금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됨.

## 2) 還給金

- FY'98의 환급금은 각 생보사의 維持率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보험 환급금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사망보험 환급금의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FY'97 보다 10.3% 증가한 20조 5,4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97의 환급금 수준은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환급금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FY'96 보다 14.0% 증가한 18조 3,127억원으로 추정됨.
  - 특히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長期化 및 타금융권과의 商品差別化가 약해지면서 환급금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존보험 환급금의 높은 증가율이 계속되고, 새가정복지보험 및 비과세저축의 증도해지 등으로 인해 당분간 환급금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 수지차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표 IV-13> 個人保險 種目別 還給金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생존보험    |      | 사망보험  |       | 생사혼합보험 |       | 개인보험 계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FY'92    | 82,174  | 67.5 | 610   | 106.1 | 33,861 | 15.0  | 116,645 | 48.1 |
| FY'93    | 97,350  | 18.5 | 1,136 | 86.2  | 35,503 | 4.8   | 133,989 | 14.9 |
| FY'94    | 115,451 | 18.6 | 2,148 | 89.1  | 22,509 | -36.6 | 140,108 | 4.6  |
| FY'95    | 121,668 | 5.4  | 3,957 | 84.2  | 20,191 | -10.3 | 145,815 | 4.1  |
| FY'96    | 134,023 | 10.2 | 6,317 | 59.6  | 20,230 | 0.2   | 160,570 | 10.1 |
| FY'97(P) | 153,858 | 14.8 | 8,369 | 32.5  | 20,900 | 3.3   | 183,127 | 14.0 |
| FY'98(E) | 173,190 | 12.6 | 9,934 | 18.7  | 22,367 | 7.0   | 205,491 | 10.3 |

### 3) 配當金

- FY'98의 배당금은 '97년의 利差配當의 자유화 폭 확대가 예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수익율의 감소 상황하에서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사혼합보험의 마이너스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FY'97 보다 9.8% 증가한 3,795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FY'97의 경우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지속, 증시폭락, 기업부도 급증 등 전체적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생보사 資産運用收益率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차배당 규모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망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무배당상품의 호조로 인하여 사망보험부문의 배당대상계약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FY'96 보다 6.4% 증가에 머문 3,457억원으로 추정됨.

<표 IV-14> 個人保險 種目別 配當金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생존보험  |      | 사망보험 |      | 생사혼합보험 |       | 개인보험 계 |      |
|----------|-------|------|------|------|--------|-------|--------|------|
|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 FY'92    | 1,498 | 62.3 | 104  | 28.4 | 1,445  | -27.3 | 3,047  | 1.9  |
| FY'93    | 1,496 | -0.1 | 133  | 27.9 | 1,375  | -4.8  | 3,004  | -1.4 |
| FY'94    | 1,739 | 6.2  | 212  | 59.3 | 895    | -34.9 | 2,845  | -5.3 |
| FY'95    | 2,102 | 20.9 | 352  | 66.0 | 576    | -35.6 | 3,030  | 6.5  |
| FY'96    | 2,237 | 6.4  | 456  | 29.5 | 555    | -3.6  | 3,248  | 7.2  |
| FY'97(P) | 2,382 | 6.5  | 553  | 21.4 | 522    | -6.1  | 3,457  | 6.4  |
| FY'98(E) | 2,608 | 9.5  | 721  | 30.3 | 466    | -10.6 | 3,795  | 9.8  |

- 다만 死差配當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망율의 下向安定化로 인해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1997년 8월의 일부보험사의 계약자배당 제한요인도 있으나 해당 보험사의 전체 비중이 작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團體保險

### (가) 收入保險料

- FY'98 團體保險 수입보험료는 1997년 하반기 경기저점 통과 이후 1998년부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Y'97보다 21.9% 증가한 15조 1,69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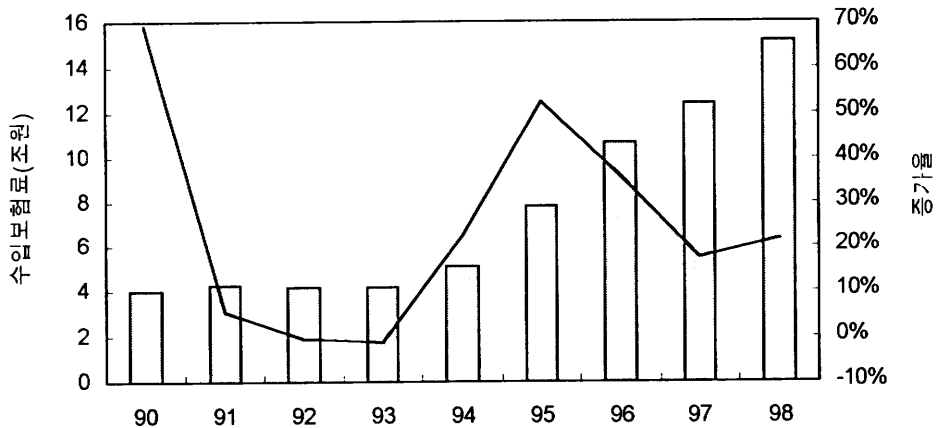
<표 IV-15> 團體保險 主要指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수입보험료   |      | 보 험 금  |      | 환 급 금  |       | 배 당 금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FY'92    | 42,229  | -0.3 | 12,825 | 28.9 | 24,067 | 150.5 | 2,923 | 37.9  |
| FY'93    | 41,660  | -1.3 | 15,105 | 17.8 | 25,844 | 7.4   | 1,587 | -45.7 |
| FY'94    | 51,115  | 22.7 | 19,096 | 26.4 | 16,840 | -36.2 | 1,244 | -21.6 |
| FY'95    | 77,944  | 52.5 | 31,218 | 63.5 | 23,048 | 36.9  | 1,937 | 55.7  |
| FY'96    | 105,825 | 35.8 | 31,511 | 0.9  | 29,010 | 25.9  | 2,343 | 21.0  |
| FY'97(P) | 124,344 | 17.5 | 38,377 | 21.7 | 33,599 | 15.7  | 2,713 | 15.8  |
| FY'98(E) | 151,699 | 21.9 | 46,183 | 19.9 | 40,232 | 19.9  | 3,425 | 26.3  |

- FY'97 團體保險 수입보험료는 1997년의 경기회복 지연 및 기업부도 사례 속출, 기업인원 감축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율의 절반수준으로서 FY'96 대비 17.5% 증가한 12조 4,344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그림 IV-8> 團體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團體保險의 주력상품인 從業員退職積立保險의 경우 실제로 기업의 자금대출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1997년도를 저점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을 1998년으로 예상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회복 등 자금수요로 인해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98년도에 도입되어 향후 증장기적으로 현행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退職年金의 신규수요가 어느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 단체보험의 성장정도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퇴직연금의 취급기관이 생보사 이외에 손보사, 은행, 투신사들이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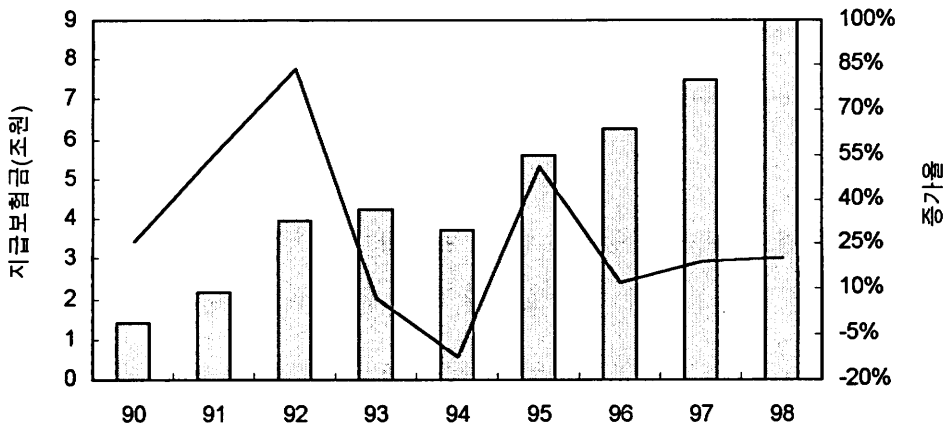
합됨으로써 당분간 신규수요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나) 支給保險金

○ FY'98 團體保險 총지급보험금은 1997년의 대기업부도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및 명예퇴직 확대 등 퇴직관련보험금의 증가와 해약 및 실효에 따른 환급금 증가의 영향을 받아 FY'97 대비 20.3% 증가한 8조 9,840억원으로 전망됨.

- FY'97의 경우 總支給保險金은 7조 4,689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6년과 1997년의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보험금 및 환급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9> 團體保險 支給保險金 推移





### 3. 損害保險

#### 가. 綜合展望

##### (1) 收入保險料

○ FY'98 損害保險 收入保險料는 전년대비 21.8% 증가한 19조 3,265억원에 이를 展望임.

- 이는 가격자유화에 따른 요율경쟁의 심화, 재보험자유화, 모집시장의 개방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의 판매호조, 國內景氣의 회복세 진전, 정부의 지속적인 社會間接資本施設(SOC) 擴充, 退職年金市場의 신규진입으로 당분간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표 IV-16> 損害保險 收入保險料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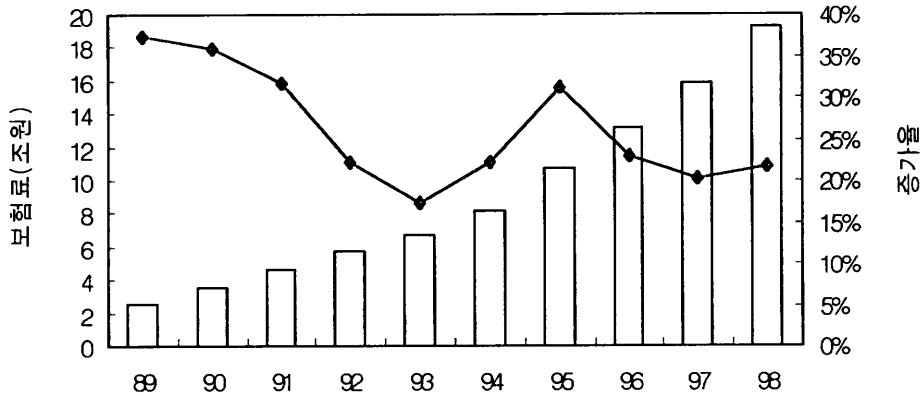
(단위: 억원, %)

| 구 분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보 험 료 | 67,016 | 81,900 | 107,409 | 131,936 | 158,684  | 193,265  |
| 증 가 율 | 17.4   | 22.2   | 31.1    | 22.8    | 20.3     | 21.8     |

○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은 보유대수의 정체로 인해 수요가 둔화되는 반면 장기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20%대의 고성장을 하여 왔지만 자동차보유대수가 1천만대를 돌파한 이후 증가세가 감소하고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받아 수입보험료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IV-10> 損害保險 收入保險料增加率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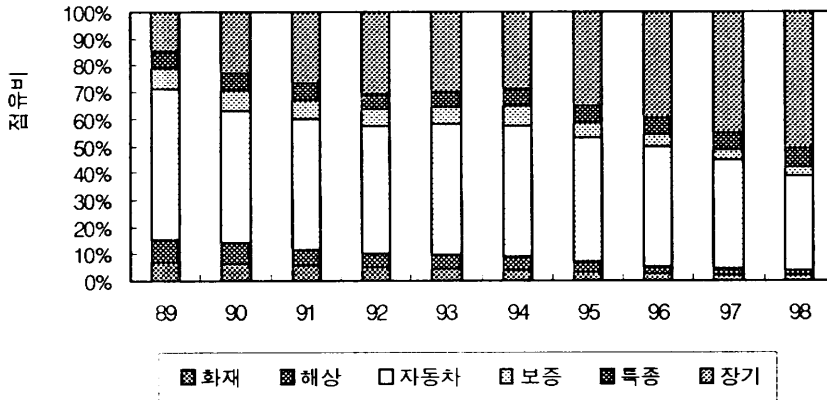


- 長期損害保險은 個人年金保險이 타금융권과의 競爭深化로 성장율이 다소 鈍化될 것으로 예상되나, 퇴직연금시장에의 신규참여와 비과세가 계장기저축상품 등 금리연동형 상품의 販賣好調, 제3분야 보험의 상품개발 등으로 당분간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特種保險分野는 종합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타 종목의 둔화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사회간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힘입어 재산종합보험 등의 종합보험과 건설공사보험 등의 기술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保證保險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기업의 속출로 수요가 한정되고 보험사의 언더라이팅강화로 성장율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임.

- 火災 및 海上保險의 경우 다른 보험에 비해 新規保險需要가 적고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받아 점유율이 계속하여 낮아질 것으로 展望됨.

- 보험종목별 점유비에 있어서는 장기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의 점유비를 추월한 50%대에 이를 것이며, 自動車保險과 함께 두 종목의 시장점유율은 86.1%에 달할 것으로 展望됨.

<그림 IV-11> 損害保險 種目別 占有比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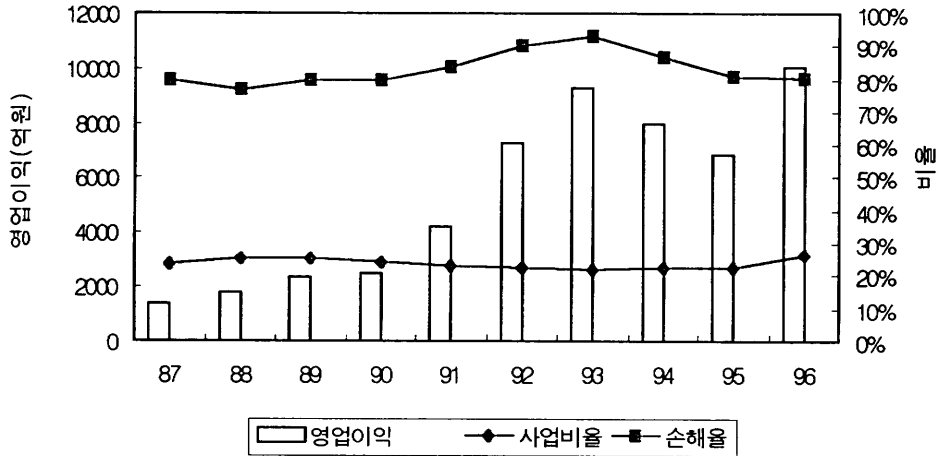


(2) 保險收支의 小幅改善

- 대부분 종목에 있어서 가격자유화와 재보험자유화에 따른 價格競爭이 예상되고 보증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인한 수지악화요인에도 불구하고, 自動車保險의 收支가 점차 안정되고 장기보험분야의 판매호조로 전체적인 營業收支는 소폭 개선될 展望임.

- 다만, 자유요율제에 따른 인수경쟁의 심화는 사업비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하여 수지개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림 IV-12> 損害率 및 事業費率의 推移



註: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수치임.

<표 IV-17> 種目別 保險營業利益 推移

(단위: 억원)

| 구 분     | 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특종  | 장기     | 계       |
|---------|------|-------|--------|--------|-----|--------|---------|
| FY'92   | 70   | 711   | -3,159 | -3,134 | 214 | -1,875 | -7,307  |
| FY'93   | 19   | 764   | -8,061 | -880   | 352 | -1,960 | -9,312  |
| FY'94   | -96  | 1,233 | -5,239 | -892   | 491 | -3,144 | -8,010  |
| FY'95   | -14  | 972   | -2,240 | -841   | 575 | -3,127 | -6,901  |
| FY'96   | -211 | 586   | -3,054 | -1,553 | 465 | -4,759 | -10,054 |
| '97.4-8 | -56  | 152   | 542    | -3,016 | 282 | -3,126 | -7,032  |

### (3) 多様な商品開発

- 국내산업의 多岐化・高度化로 인한 다양한 新種危險이 出現하고 있으며, 각 계층별로 다양한 保險需要가 창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분야에 대한 손·생보 상호진출 허용으로 관련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것임.
- 아울러 보험중개업의 해외개방, 자유요율제 운용에 따라 각 사가 계약자의 니드에 부합하는 주문형 보험증권(tailor made policy)에 대한 계약자의 수요, 다양한 위험의 패키지(package)화에 부응하는 新商品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 (4) 資産運用 環境變化

- OECD가입과 정부의 持續的인 規制緩和 추세에 따라 손보사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운용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특히 1994년 도입된 個人年金, 1996년에 도입된 非課稅長期家計貯蓄에 이어 1998년 1월에는 退職年金이 全金融圈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율을 둘러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가일층 격화될 展望임.
- 이에 따라 資産運用收益率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축과 투자대상의 다양화 및 投資技法의 先進化 노력이 한층 중요해질 展望임.

## 나. 損害保險 種目別 展望

### (1) 火災保險

#### (가) 保險料

- FY'98 收入保險料는 自由料率로의 移行 및 火災保險 物件의 財産綜合保險으로의 이전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景氣回復에 따라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9.3% 성장한 3,541억원으로 展望됨.
- 火災保險의 FY'97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1% 감소한 3,240억원에 그칠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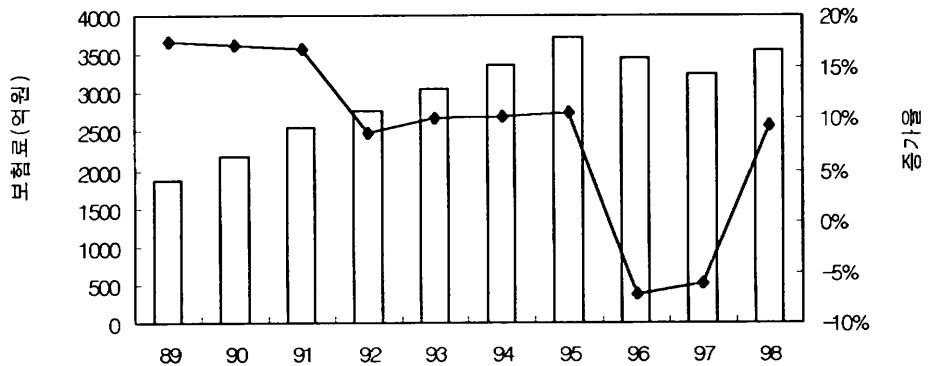
<표 IV-18> 火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2,772 | 3,051 | 3,361 | 3,718 | 3,452 | 3,240    | 3,541    |
| 증 가 율 | 8.7   | 10.1  | 10.2  | 10.6  | -7.2  | -6.1     | 9.3      |

- 건설경기 촉진과 신도시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유요율제 시행에 대비한 요율조정, 요율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기업성 물건의 PAR(Property All Risks) 및 Package Insurance Policy로의 전환이 다소 감소되고 성장세는 호전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험증개업의 해외개방 등으로 인해 고액계약의 料率引下壓力이 상존하고, 자유요율제하의 保險社間 유치경쟁에 따른 보험료 감소요인도 있음.

<그림 IV-13> 火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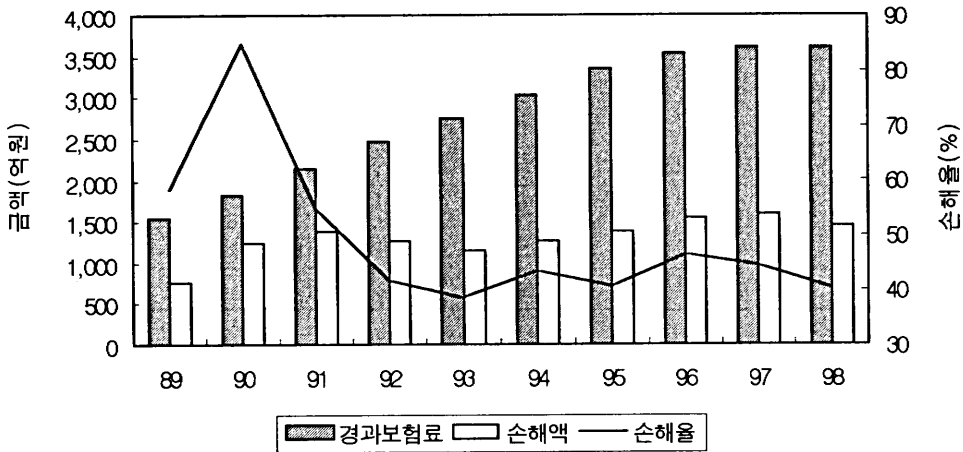
(나) 損害率 推移

○ FY'96의 經過損害率は 47.3%로서 전년도보다 6.5%p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5개년(FY'92-FY'96)의 損害率は 43.4%로서 豫定損害率 51.4%에 못미치는 安定된 實績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최근 들어 火災保險 실적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風水災 損害 및 대형화재사고가 줄어든 데 기인한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화재보험실적의 2/3를 차지하는 공장물건의 손해율이 안정적인 것에 따른 것임.

○ 다만, 방재기술의 향상에 따른 재해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料率競争의 심화로 長期的으로 火災保險의 손해율은 豫정손해율(50%)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림 IV-14> 火災保險 損害率 推移



註: FY'97, FY'98 손해율은 5개년 가중이동평균법에 의한 추세임(이하 동일).

(다) 保險營業收支

- 1997년 8월 현재 보험영업수지는 전년동기의 0.5억원 흑자보다 훨씬 늘어난 56억원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4월의 自由料率 導入(범위폭±30%)이후 대형물건을 중심으로 인수경쟁이 심화된 데서 기인함.
- 이에 따라 保險營業收支는 점차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再保險 出再 등의 부수적인 특수성으로 악화정도는 일정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展望됨.



<표 IV-19> 火災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보유경과<br>보 험 료 | 손해액   | 손해율  | 사업비   | 사업비율 | 합산비율  | 보험영업<br>이 익 |
|---------|---------------|-------|------|-------|------|-------|-------------|
| FY'92   | 1,912         | 868   | 45.4 | 974   | 49.2 | 94.6  | 70          |
| FY'93   | 2,103         | 1,007 | 47.9 | 1,077 | 48.7 | 96.6  | 19          |
| FY'94   | 2,338         | 1,333 | 55.8 | 1,150 | 44.8 | 100.6 | -96         |
| FY'95   | 2,703         | 1,318 | 48.8 | 1,399 | 50.5 | 99.3  | -14         |
| FY'96   | 2,778         | 1,570 | 56.5 | 1,419 | 51.0 | 107.5 | -211        |
| '97.4-8 | 1,157         | 713   | 61.6 | 500   | 44.6 | 106.2 | -56         |

(2) 海上保險

(가) 保險料

○ FY'98 收入保險料는 국내경기의 확장국면 진입에 따른 수출입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율인하추세로 인해 전년대비 1.4% 증가에 그친 3,574억원으로 손보시장내 점유율이 1.8%로 하락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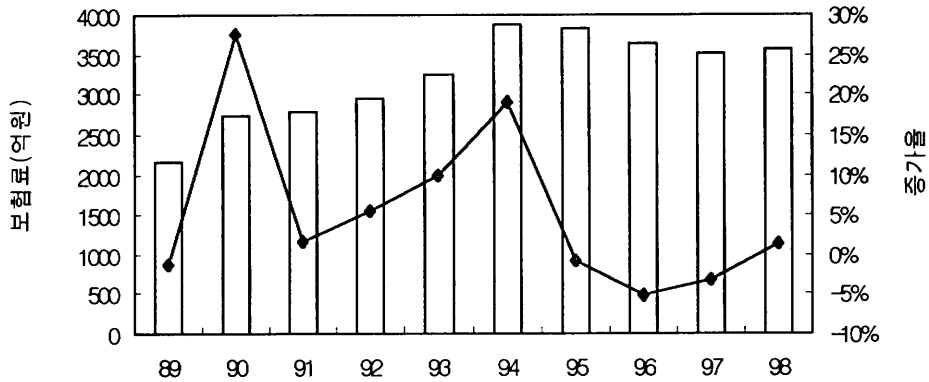
- FY'97 보험료는 전년도에 이어 6.1% 감소한 3,525억원 으로 추정됨.

<표 IV-20> 海上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2,953 | 3,247 | 3,867 | 3,839 | 3,641 | 3,240    | 3,541    |
| 증 가 율 | 5.6   | 9.9   | 19.1  | -0.7  | -5.2  | -6.1     | 1.4      |

<그림 IV-15> 海上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1) 船舶保險

○ FY'98 수입보험료는 노후선 대체 본격화, 국내선단의 대형화·현대화 추세 지속에 따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유요율제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2.4% 증가한 1,424억원에 그칠 展望임.

- FY'97의 경우 전년대비 1.8% 감소한 1,390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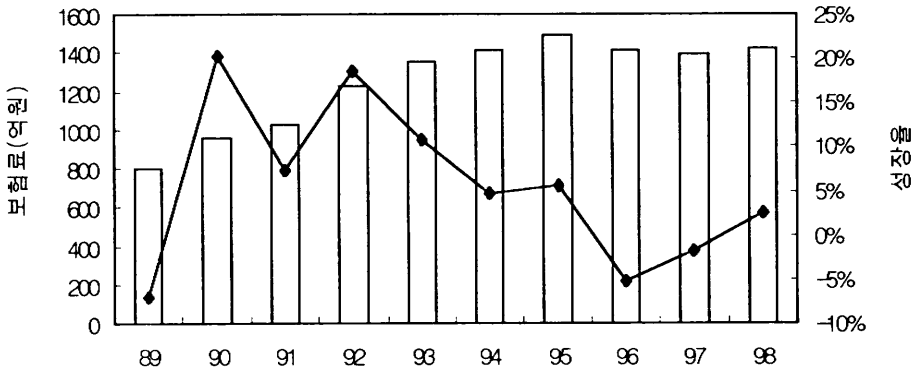
<표 IV-21> 船舶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E) | FY'98(P) |
|-------|-------|-------|-------|-------|-------|----------|----------|
| 수입보험료 | 1,220 | 1,352 | 1,415 | 1,493 | 1,416 | 1,390    | 1,424    |
| 증 가 율 | 18.5  | 10.8  | 4.7   | 5.5   | -5.2  | -1.8     | 2.4      |

- 국내해운업체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단의 대형화, 현대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보유선복량이 증대되고 척당평균톤수가 증가하여 선박보험의 수요는 늘어날 추세임.
- 다만, 재보험과 가격자유화, 크로스보더 허용 등의 요인은 保險料 증가를 鈍化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그림 IV-16> 船舶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2) 積荷保險

- FY'98 收入保險料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율인하추세로 인해 전년 대비 0.7% 증가한 2,150 억원에 그칠 것으로 展望됨.
- FY'97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2,135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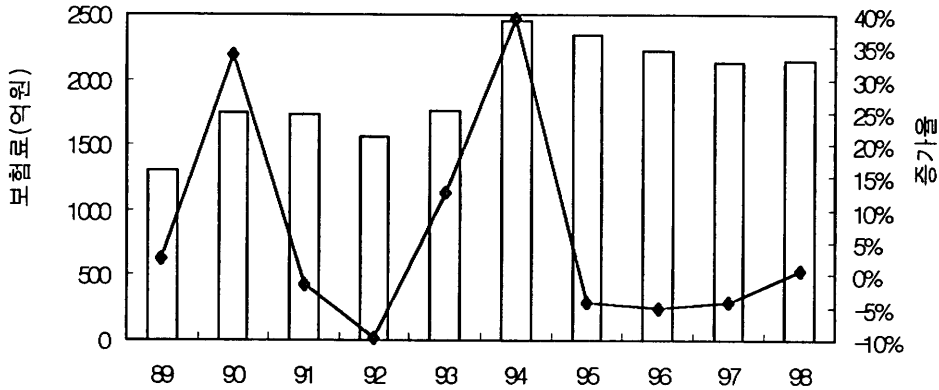
<표 IV-22> 積荷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1,561 | 1,759 | 2,451 | 2,346 | 2,225 | 2,135    | 2,150    |
| 증가율   | -9.7  | 12.7  | 39.3  | -4.3  | -5.2  | -4.0     | 0.7      |

註: 적하보험의 실적에는 어획물보험, 컨테이너보험등의 실적이 포함됨.

<그림 IV-17> 積荷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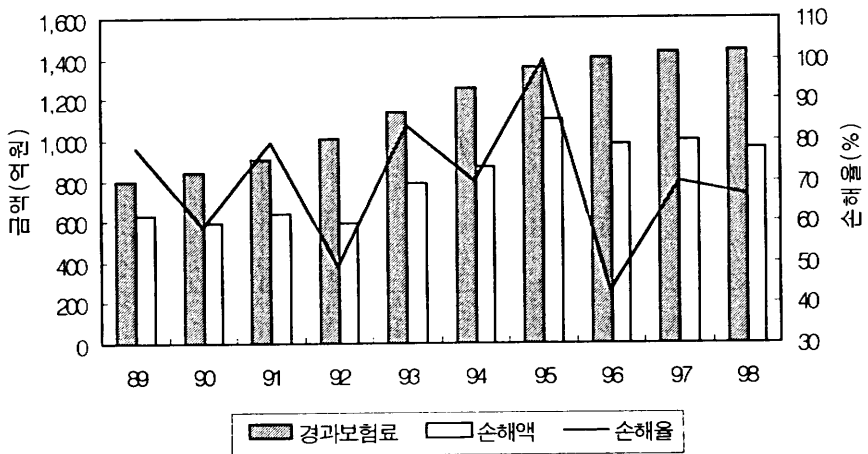
- 이는 輸出·入 物動量의 꾸준한 증가(FY'96에 전년대비 계약건수 5.4%, 보험가입금액 8.1%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율인하('95.8 수출 : 20.9%인하, 수입 : 29.7%인하, '97.3 수출 9.9%인하, 수입 31.5%인하), 포괄보험계약의 범위확대 등이 보험료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크로스보더로 인한 保險料의 海外流出의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따른 것임.

(나) 損害率 推移

1) 船舶保險

- FY'96의 損害率은 전년대비 47.5%p 하락한 52.2%를 기록하였고 최근 5개년 (FY'92~FY'96)의 平均損害率은 71.7%로 豫定損害率(75%)을 약간 下回하고 있으며, 향후 동 보험의 손해율은 크로스보더 허용 및 효율자유화 등으로 市場競爭이 深化됨에 따라 다소 높아질 展望임.

<그림 IV-18> 船舶保險 損害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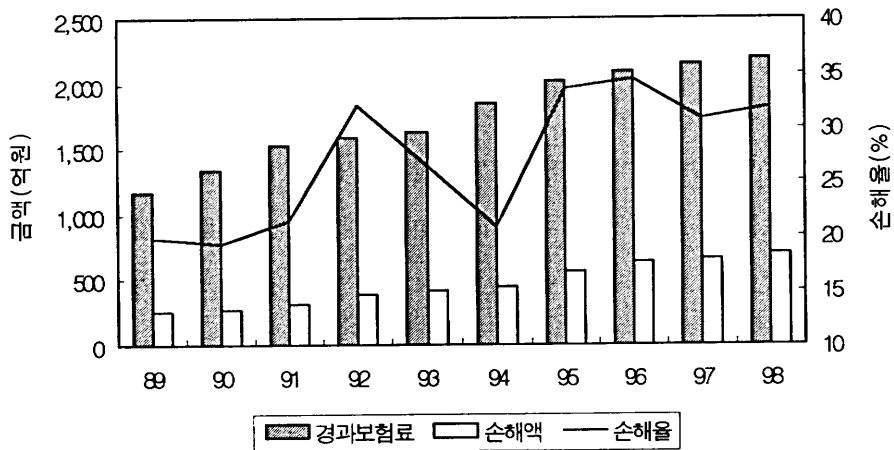
2) 積荷保險

- FY'96의 損害率은 전년대비 1.1%p 증가한 34.7%를 기록하였으며 수출 적하의 경우 효율인하와 차관계약, 제3국간운송화물, 대륙횡단화물사고의 빈발로 전년대비 11.7%p 증가한 반면, 수입적하의 경우에는 대폭적

인 효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수 및 손해액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음.

- 그러나 지속적인 효율인하, 自由料率制 시행(1997년4월)에 따른 料率引下競爭의 深化로 향후의 損害率은 점차 上昇할 展望임.

<그림 IV-19> 積荷保險 損害率 推移



(다) 保險營業收支

- 해상보험의 보험영업수지는 500톤미만 船舶保險의 自由料率 적용, 積荷保險의 自由料率制 도입(1997년4월), 船舶保險의 크로스보더 許容('97년 1월) 등의 影響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동안의 保險營業黑字幅은 점차 감소될 展望임.

<표 IV-23> 海上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보유경과<br>보 험 료 | 손해액   | 손해율  | 사업비 | 사업비율 | 합산비율 | 보험영업<br>이 익 |
|---------|---------------|-------|------|-----|------|------|-------------|
| FY'92   | 2,015         | 679   | 33.7 | 625 | 31.0 | 64.7 | 711         |
| FY'93   | 2,145         | 721   | 33.6 | 660 | 29.4 | 63.0 | 764         |
| FY'94   | 2,734         | 765   | 28.0 | 735 | 25.3 | 53.3 | 1,233       |
| FY'95   | 2,921         | 1,049 | 35.9 | 901 | 32.1 | 68.0 | 972         |
| FY'96   | 2,719         | 1,150 | 42.3 | 983 | 36.5 | 78.8 | 586         |
| '97.4-7 | 1,015         | 438   | 43.2 | 425 | 45.3 | 85.7 | 152         |

- 특히 그동안 주로 保險營業黑字 種目이었던 積荷保險은 價格自由化 推進에 따른 持續的인 料率引下, 國內社間의 引受競爭 深化와 크로스 보더 許容으로 인해 黑字幅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3) 自動車保險

#### (가) 保險料

- FY'98 收入保險料는 자동차 대수 증가율의 鈍化 및 책임보험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3% 증가한 6조 7,87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FY'97 收入保險料는 전년대비 9.2% 증가한 6조 3,841억 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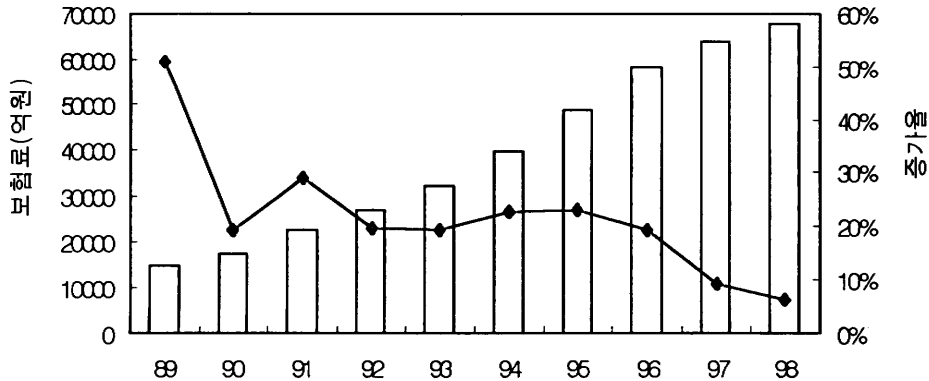
<표 IV-24> 自動車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책 임<br>보 험        | 보험료 | 5,055  | 6,696  | 10,958 | 13,134 | 18,784 | 24,993   | 27,186   |
|                   | 증가율 | 2.5    | 32.5   | 63.6   | 19.9   | 43.0   | 33.1     | 8.8      |
| 종 합<br>보 험        | 보험료 | 21,934 | 25,550 | 28,673 | 35,630 | 39,520 | 38,697   | 40,519   |
|                   | 증가율 | 24.9   | 16.5   | 12.2   | 24.3   | 10.9   | -2.1     | 4.7      |
| 기 타 <sup>1)</sup> | 보험료 | 93     | 113    | 119    | 122    | 137    | 151      | 167      |
|                   | 증가율 | 10.7   | 21.5   | 5.3    | 2.5    | 12.3   | 10.2     | 10.6     |
| 합 계               | 보험료 | 27,082 | 32,358 | 39,751 | 48,886 | 58,441 | 63,481   | 67,872   |
|                   | 증가율 | 19.9   | 19.5   | 22.8   | 23.0   | 19.5   | 9.2      | 6.3      |

註: 1) 기타보험에는 운전자보험, 외화표시종합보험, 취급업자종합보험,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이 포함됨.

<그림 IV-20> 自動車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특히 책임보험의 경우 1997년 8월의 보상한도확대에 따른 수입보험료 증가효과는 FY'98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 향후 수입보험료 증가



율은 자동차대수 증가율에 의한 영향만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자동차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自動車保有臺數는 1997년에는 심각한 내수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98년에는 경기회복, 삼성의 신규자동차출시에 따른 판매방식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전년대비 8.8% 증가한 1천 114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 대수 증가율은 대도시의 열악한 도로사정과 政府의 自動車保有抑制策으로 점차 鈍化될 展望임.

<표 IV-25> 自動車保有臺數 推移

(단위: 천대, %)

| 구 분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E) | 1998(E) |
|---------|-------|-------|-------|-------|-------|---------|---------|
| 자동차보유대수 | 5,231 | 6,274 | 7,405 | 8,469 | 9,553 | 10,489  | 11,412  |
| 전년대비증가율 | 23.1  | 19.9  | 18.0  | 14.4  | 12.8  | 9.8     | 8.8     |

註: '97, '98년 보유대수는 기아경제연구소의 전망치임.

資料: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96, 기아경제연구소, 「'98 자동차산업전망」,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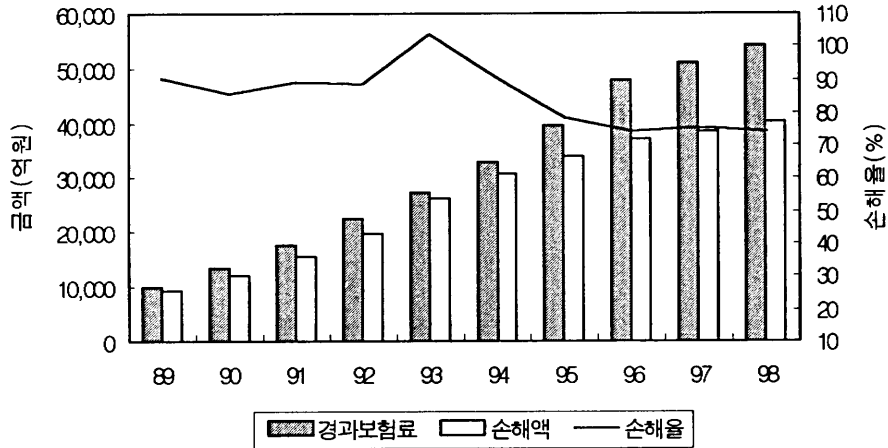
- 또한 1997년 8월 보험금지급기준의 개선, 책임보험에 종합보험과 동일한 할인할증체계 도입, 책임보험의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제가 도입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나) 損害率 推移

- FY'97년 및 FY'98년의 損害率은 FY'95년, FY'96년의 전면적 제도개선과 料率調整에 따른 保險料 增加效果가 계속 나타나고 사고발생율이 감소하는 등 하락요인이 있으나, 1996년 8월과 1997년 8월의 지급기준

인상 및 임금, 물가 등 保險金 原價의 상승요인이 남아 있어 71%~72%선을 유지할 것으로 展望됨.

<그림 IV-21> 自動車保險 損害率 推移



○ FY'96의 損害率은 事故發生率의 감소와 1995년 8월 制度改善 및 料率 調整의 영향에 따라 전년의 78.5%에 비해 4.3%p 감소한 74.2%를 나타냈으나 豫定損害率 72.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責任保險의 損害率은 FY'96에 63.1%로 전년대비 1.2%p 감소하였는데 이는 책임보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의 사고 발생을 감소에 기인한 것임.

- 한편 任意保險의 손해율은 制度改善 및 料率調整의 영향에 따라 전년도의 83.7%에 비해 4.9%p 감소한 78.8%를 나타내고 있으나 예정 손해율(71.2%)보다 7.6%p가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다) 保險營業收支

○ 自動車保險 保險營業收支는 사고발생율의 감소 및 계약자의 위험도에 상응한 요율체계도입 등으로 손해율이 낮아져 개선될 展望이나 모집 경쟁의 심화에 따른 사업비의 과다지출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1997년 8월 현재의 합산비율은 95.7%로 전년동기(손해율 67.5%, 사업비율 28.2%)에 비해 3.7%p 낮아졌으며, 보험영업이익은 542억원의 흑자로 반전되었음.

<표 IV-26> 自動車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보유경과<br>보험료 | 손해액    | 손해율   | 사업비    | 사업비율 | 합산비율  | 보험영업<br>이익 |
|---------|-------------|--------|-------|--------|------|-------|------------|
| FY'92   | 25,929      | 23,142 | 89.3  | 5,946  | 22.0 | 111.3 | -3,159     |
| FY'93   | 30,397      | 31,550 | 103.8 | 6,908  | 21.4 | 125.2 | -8,061     |
| FY'94   | 36,712      | 33,464 | 91.2  | 8,488  | 21.4 | 112.6 | -5,239     |
| FY'95   | 44,494      | 35,331 | 79.4  | 11,404 | 23.4 | 102.8 | -2,240     |
| FY'96   | 58,367      | 40,104 | 74.4  | 16,864 | 28.9 | 103.3 | -3,054     |
| '97.4-8 | 23,968      | 16,190 | 67.5  | 7,236  | 28.2 | 95.7  | 542        |
| '96.4-8 | 21,943      | 16,171 | 73.7  | 6,285  | 25.7 | 99.4  | -961       |

(4) 保證保險

(가) 保險料

○ FY'98 收入保險料는 전년 대비 7.3% 성장한 6,742억원에 달할 것으로 展望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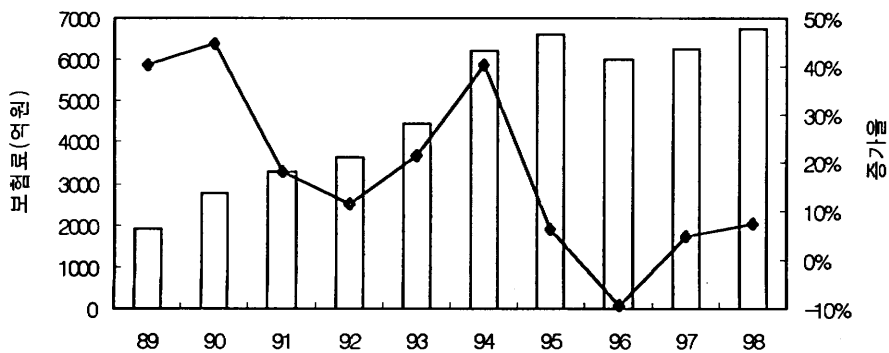
- 보증보험 보험료는 國內景氣가 하강국면을 벗어나고 信用社會의 定着 및 環境變化에 대응한 新種商品의 開發에 따른 保證需要의 증가가 예상되나 할부금융업 등 유사업종의 시장잠식이 예상된다.
- FY'97 수입보험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기업의 속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의 증가, 신생기업의 진입 그리고 전년도의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전년대비 4.9% 증가한 6,286억원으로 추정됨.

<표 IV-27> 保證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3,646 | 4,436 | 6,221 | 6,601 | 5,992 | 6,286    | 6,742    |
| 증 가 율 | 11.5  | 21.7  | 40.2  | 6.1   | -9.2  | 4.9      | 7.3      |

<그림 IV-22> 保證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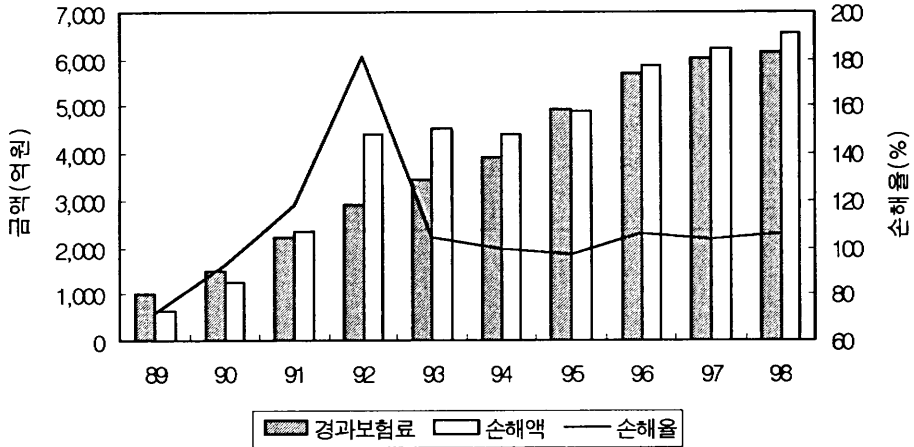
- 최근 保證保險市場은 기존의 주력종목인 割賦販賣保證과 소액대출보증보험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履行保證保險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 FY'95에 보증보험시장의 32.0%와 22.9%를 점유하던 할부판매보증과 소액대출보증은 FY'96에 점유율이 27.8%와 8.8%로 각각 4.2%p, 15.6%p가 하락하였음(FY'96의 전년대비 성장율은 할부판매보증 -5.1%, 소액대출보증은 -67.3%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履行保證保險은 FY'96에 전년대비 27.2% 증가한 1,984억원으로 보증보험시장내 점유율이 33.1%로 높아졌으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예년과 유사한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展望됨.
- 割賦販賣保證保險의 경우 자동차 내수시장 정체에 따른 보증수요감소와 자동차 판매자나 할부금융사의 자체신용에 의한 할부판매의 증가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少額貸出保證의 경우도 損害率 惡化 및 引受條件의 강화 등이 반영되어 성장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展望됨.

#### (나) 損害率 推移

- FY'96의 損害率은 106.3%로 FY'92의 181.1%이래 가장 악화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FY'97에도 경기부진에 따른 保險料 增加勢 鈍化와 事故 多發로 損害率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1997년 8월 현재 손해율은 197.4%임).

- 다만 FY'98에는 경기회복과 언더라이팅강화에 따라 점차 손해율의 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그림 IV-23> 保證保險 損害率 推移



(다) 保險營業收支

- 保證保險의 보험영업수지는 소액대출, 割賦金融保證 등의 保險料 성장세 鈍化 및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호전상황으로의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1997년 8월 현재의 보험수지는 전년동기에 비해 213.8%나 증가한 3,0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로 어음지급보증, 사채보증, 리스보증 등 기업체 관련 金融保證에 기인한 것임.

<표 IV-28> 保證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보유경과<br>보험료 | 손해액    | 손해율   | 사업비   | 사업비율 | 합산비율  | 보험영업<br>이익 |
|---------|-------------|--------|-------|-------|------|-------|------------|
| FY'92   | 3,322       | 52,716 | 172.1 | 740   | 20.6 | 192.7 | -3,134     |
| FY'93   | 3,680       | 3,721  | 101.1 | 839   | 19.2 | 120.3 | -880       |
| FY'94   | 4,168       | 4,089  | 98.1  | 971   | 15.8 | 113.9 | -892       |
| FY'95   | 5,771       | 5,514  | 95.5  | 1,098 | 16.8 | 112.3 | -841       |
| FY'96   | 6,092       | 6,359  | 104.4 | 1,285 | 21.7 | 126.1 | -1,553     |
| '97.4-8 | 2,728       | 5,385  | 197.4 | 359   | 13.0 | 210.4 | -3,016     |
| '96.4-8 | 2,484       | 3,082  | 124.1 | 364   | 14.5 | 138.6 | -961       |

(5) 特種保險

(가) 保險料

○ FY'98 收入保險料는 국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투자확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9.4% 상승한 1조 3,046억원에 이를 展望임.

- FY'97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7.1% 성장한 1조 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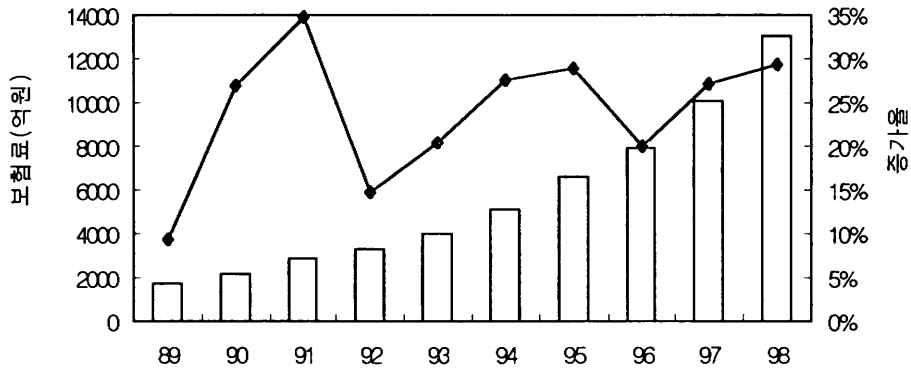
<표 IV-29> 特種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sup>1)</sup> | 3,334 | 4,016 | 5,127 | 6,610 | 7,935 | 10,084   | 13,046   |
| 증 가 율               | 14.7  | 20.5  | 27.7  | 28.9  | 20.0  | 27.1     | 29.4     |

註: 1) 기술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기타 특종보험(항공보험 포함)의 합산실적임.

<그림 IV-24> 特種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특수한 위험을 담보하는 특종보험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의 구조 다  
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신상품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추세는 소득의 증가, 餘暇時間 확대 등에 따른 레포츠 위험담  
보상품 및 제3분야 상호경영허용에 따른 상해, 질병, 간병부분 상품  
개발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험료비중이 큰 근재보험의 경우 선원근로자의 감소로 인한  
선원근재의 위축, 해외건설공사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현지근로자 채  
용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근재보험의 수요가 감소추세이며, 1998  
년부터 직업훈련생과 해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영위로 인해 증가  
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1) 技術保險

○ FY'98 收入保險料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및 기업들의 산업 구조의 조정을 위한 신규설비투자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6.1% 증가한 2,641억원에 이를 展望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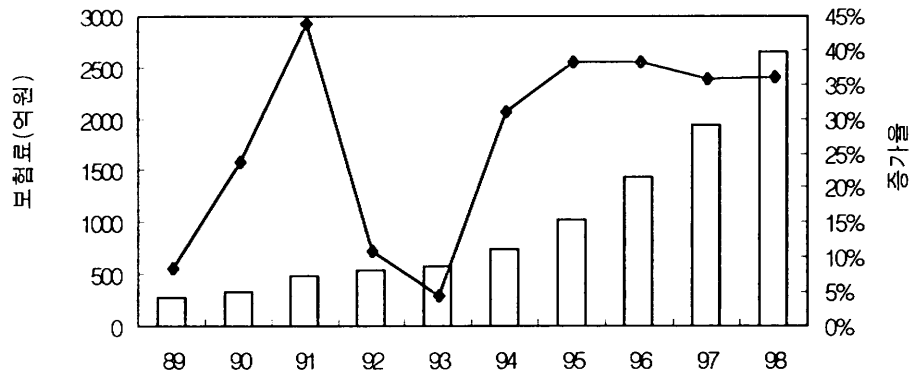
- FY'97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35.8% 증가한 1,9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IV-30> 技術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547   | 570   | 747   | 1,032 | 1,429 | 1,940    | 2,641    |
| 증 가 율 | 10.8  | 4.4   | 30.9  | 38.2  | 38.4  | 35.8     | 36.1     |

<그림 IV-25> 技術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2) 賠償責任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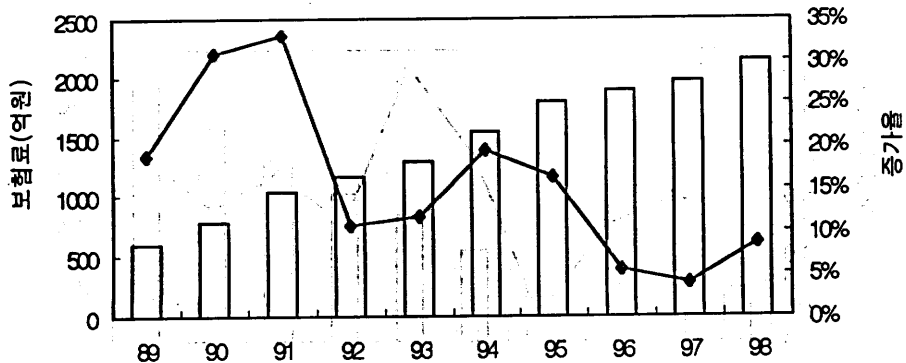
○ FY'98 收入保險料는 최근에 이르러 항공기폭발, 건물붕괴 등의 대형사고로 인해 賠償責任保險의 역할이 부각되고, 국민의 權利意識 고양 등으로 賠償責任保險의 수요가 꾸준한 增加勢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료비중이 큰 근재보험의 성장율이 둔화추세를 보여 전년대비 8.5% 증가한 2,135억원을 기록할 展望임.

<표 IV-31> 賠償責任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1,156 | 1,290 | 1,539 | 1,791 | 1,891 | 1,968    | 2,135    |
| 증 가 율 | 10.6  | 11.6  | 19.3  | 16.4  | 5.6   | 4.1      | 8.5      |

<그림 IV-26> 賠償責任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또한 아직까지는 수요가 미진했으나 최근에 들어 잠재적인 수요가

가시화되고 있는 環境賠償保險, 生産物賠償, 醫師·會計士·設計士專門職賠償責任保險 등도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 3) 傷害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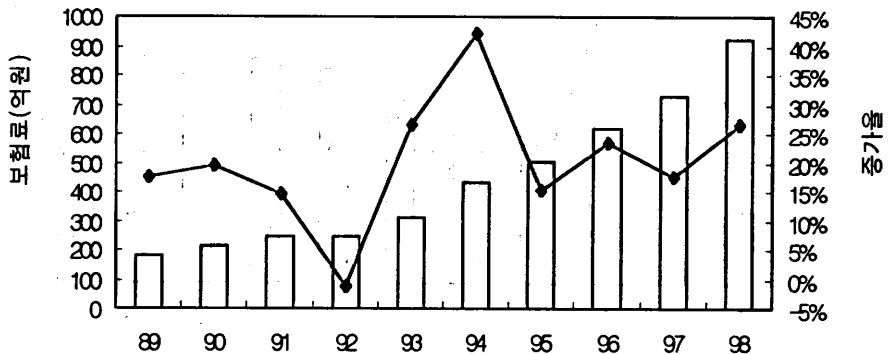
- FY'98 收入保險料는 최근 대형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해외여행 증가로 전년대비 26.6% 증가한 922억원에 이를 展望임.

<표 IV-32> 傷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 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242   | 307   | 435   | 502   | 620   | 728      | 922      |
| 증 가 율 | -0.1  | 26.7  | 41.9  | 15.4  | 23.5  | 17.4     | 26.6     |

<그림 IV-27> 傷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상해보험의 성장을 주도해온 해외여행보험은 기업의 국제교류확대, 해

외여행의 보편화 등으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레포츠 담보위험, 女性關聯 疾病 및 傷害危險擔保 상품의 판매호조, 團體傷害 保險의 개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표 IV-33> 海外旅行者數와 保險料 增加率推移

(단위: 천명, 백만원, %)

| 구 분                | '92   | '93   | '94    | '95    | '96    | 평균     |
|--------------------|-------|-------|--------|--------|--------|--------|
| 여행자수 <sup>1)</sup> | 2,043 | 2,420 | 3,154  | 3,819  | 4,649  | 3,217  |
| 증 가 율              | 10.1  | 18.5  | 30.3   | 21.1   | 21.7   | 22.8   |
| 보 험 료              | 6,093 | 8,564 | 12,756 | 18,438 | 24,228 | 14,016 |
| 증 가 율              | -3.1  | 40.5  | 49.0   | 44.5   | 31.4   | 41.2   |

註: 1) 여행자수는 CY기준이며 보험료는 FY기준임.

資料: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1996.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1996.

#### 4) 綜合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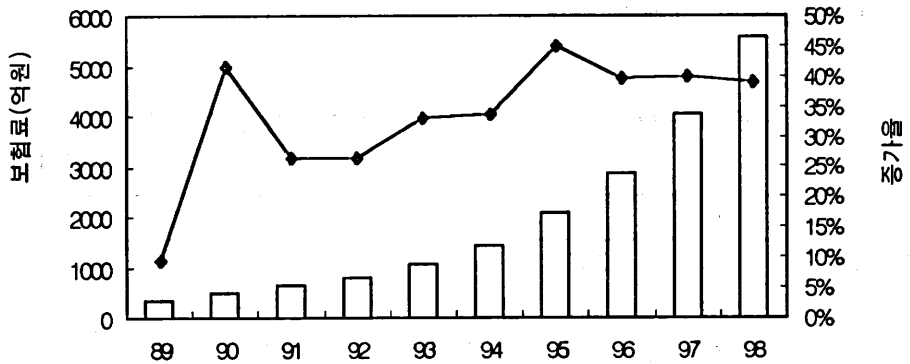
- FY'98 收入保險料는 보험계약자의 종합담보 선호추세로 전년대비 39.1% 증가한 5,592억원에 이를 展望이며, 또한 FY'97의 경우 4,201 억원으로 전년대비 40.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IV-34> 綜合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797   | 1,062 | 1,418 | 2,058 | 2,871 | 4,021    | 5,592    |
| 증 가 율 | 26.3  | 33.2  | 33.5  | 45.1  | 39.5  | 40.1     | 39.1     |

<그림 IV-28> 綜合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이러한 종합보험의 급성장은 기업성 물건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의 수요패턴이 위험의 종합담보를 선호하는 데다, 보험계약자의 니드에 맞춘 종합담보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한편 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의 공장물건(주로 石油化學 및 綿紡織 物件)이 財産綜合保險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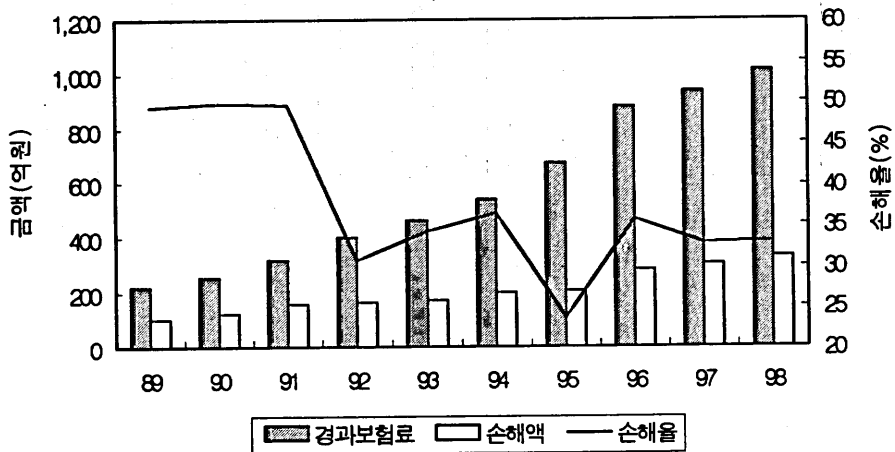
(나) 損害率 推移

1) 技術保險

○ FY'96의 損害率은 35.7%, 최근 5개년(FY'92-FY'96)의 平均損害率은 32.1%로 예정손해율 60%에 훨씬 낮은 상태임.

- 1990년대 들어 30%대의 安定的인 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험료 비중이 큰 建設工事保險의 손해율 악화로 전체적인 손해율도 상향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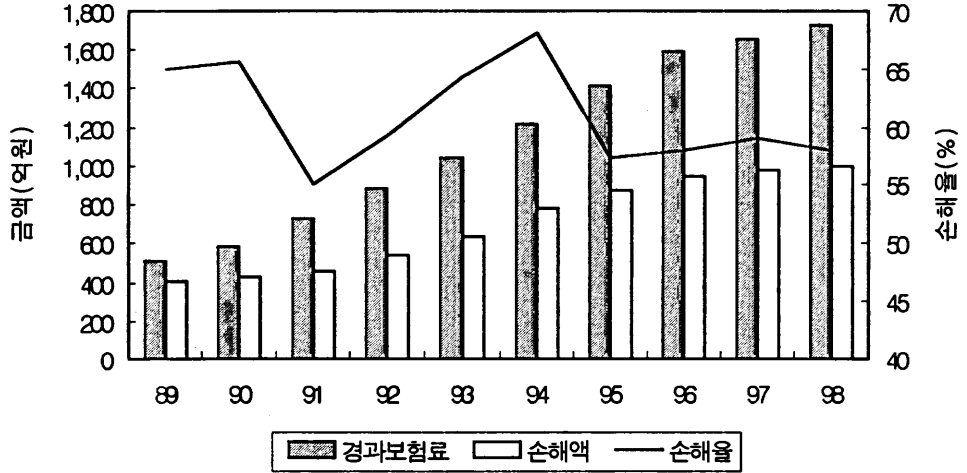
<그림 IV-29> 技術保險 損害率 推移



## 2) 賠償責任保險

- FY'96의 損害率은 58.0%, 최근 5개년(FY'92-FY'96)의 平均損害率은 61.6%로써 예정손해율 68.7%에 비해 安定的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근재보험의 손해율 악화추세, 배상금액의 고액화 추세,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확대 추진 등으로 향후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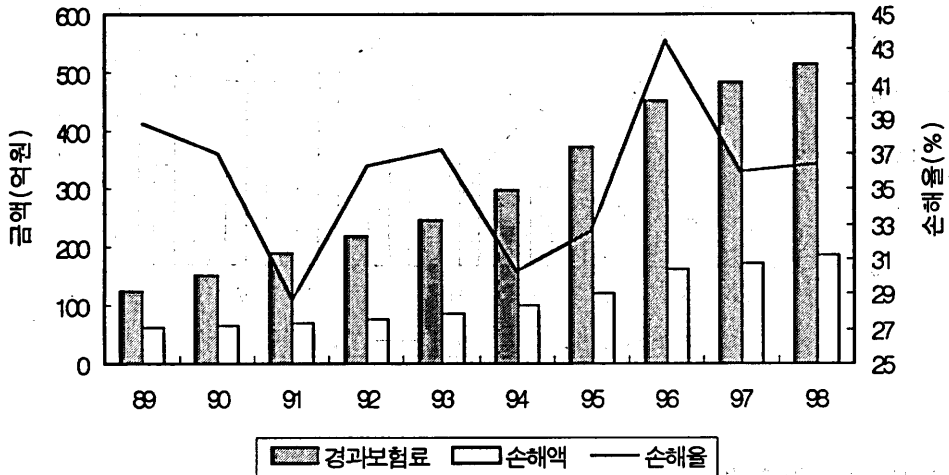
<그림 IV-30> 賠償責任保險 損害率 推移



### 3) 傷害保險

- FY'96의 損害率은 43.5%, 최근 5개년(FY'92-FY'96)의 平均損害率은 36.0%로서 巨대손해가 없는 中 保險의 特性상 FY'97, FY'98에도 40% 대의 安定된 實績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價格自由化에 따른 손보사간 兪율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실적 악화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 동보험의 손해율은 예정손해율(96년 기준 45.2%)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임.

<그림 IV-31> 傷害保險 損害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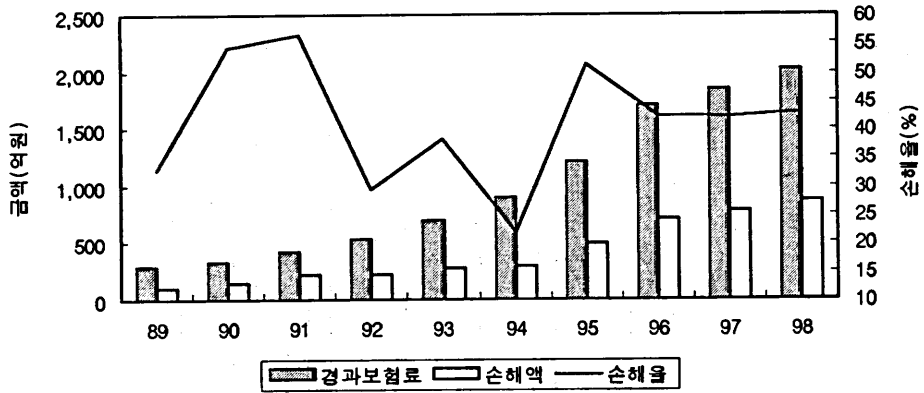
#### 4) 綜合保險

○ FY'96의 損害率은 42.3%, 최근 5개년(FY'92-FY'96)의 平均損害率은 36.6%로 豫定損害率(50%)을 下回하는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FY'97, FY'98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는 住宅商工綜合保險의 損害率 악화(5개년 평균 146.5%)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비중이 큰 재산종합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등의 실적이 효율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풍수재 등 자연재해의 감소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데 기인함.



<그림 IV-32> 綜合保險 損害率 推移



(다) 保險營業收支

○ 1997년 8월 현재 보험영업수지는 합산비율이 85.4%를 시현, 25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자유요율제 시행으로 전반적인 요율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므로 영업수지는 다소 악화될 우려도 있음.

- 그러나 同 保險의 신규수요가 늘어나고 潛在成長率이 높아 收支黑字는 당분간 지속될 展望임.

<표 IV-35> 特種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보유경과<br>보험료 | 손해액   | 손해율  | 사업비   | 사업비율 | 합산비율 | 보험영업<br>이익 |
|---------|-------------|-------|------|-------|------|------|------------|
| FY'92   | 2,393       | 1,418 | 59.3 | 760   | 30.7 | 90.0 | 214        |
| FY'93   | 2,743       | 1,595 | 58.1 | 797   | 27.4 | 85.5 | 352        |
| FY'94   | 3,306       | 1,885 | 57.0 | 930   | 26.0 | 83.0 | 491        |
| FY'95   | 4,144       | 2,299 | 55.5 | 1,270 | 28.0 | 83.5 | 575        |
| FY'96   | 5,153       | 2,990 | 58.5 | 1,735 | 31.1 | 89.6 | 429        |
| '97.4-8 | 2,400       | 1,319 | 55.0 | 823   | 30.4 | 85.4 | 258        |

註: 기술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기타 특종보험의 합산실적이며 해외 원보험과 외국수재 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6) 長期損害保險

(가) 保險料

- FY'98 收入保險料는 個人年金損害保險의 판매지속, 非課稅家計長期貯蓄商品 등의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호조 및 退職年金保險의 신규수요로 전년대비 37.3% 증가한 9조 8,490억원으로 손보시장내 占有率이 50.5%에 이를 展望임.
- 1994년 6월부터 판매된 個人年金損害保險은 FY'96 결산실적이 損保市場의 6.6%(8,719억원)를 점유한 데 이어 1997년 7월 현재 3,097억원의 保險料를 거수하여 손보전체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나 판매초기와 같은 급성장은 점차 둔화될 전망임.
- 1996년 10월부터 판매된 비과세가계장기저축보험 등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확대는 장기상해, 장기종합보험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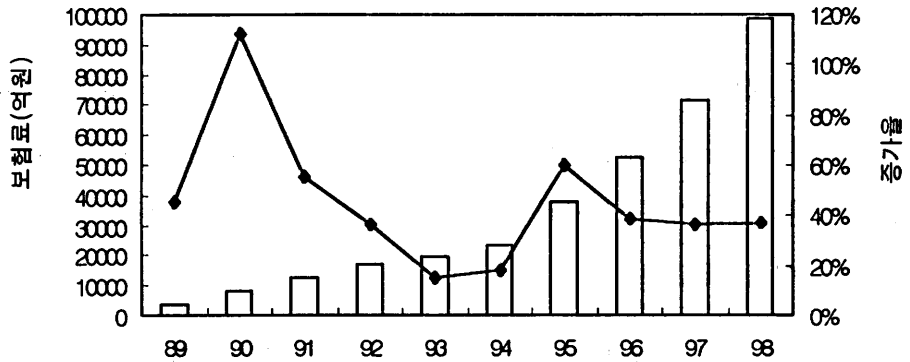
<표 IV-36> 長期損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sup>1)</sup> | 17,293 | 19,908 | 23,573 | 37,755 | 52,474 | 71,708   | 98,490   |
| 증 가 율               | 36.8   | 15.1   | 18.4   | 60.2   | 39.0   | 36.7     | 37.3     |

註: 1) FY'94부터는 個人年金실적이 포함됨.

<그림 IV-33> 長期損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또한 제3분야 상호경영 허용으로 인해 각 회사별로 기존상품을 보완한 단독상품의 개발 및 장기간병보험, 所得喪失保險 등 기존 長期保險 販賣擴大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1) 長期火災保險

- FY'98 收入保險料는 전년대비 10.8% 감소한 231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長期保險 전체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점차 감소하여 0.3%이하로 떨어질 展望임.
- 長期火災保險을 보완·대체한 각사의 長期綜合保險 단독상품의 開發·販賣에 따라 長期火災保險의 마이너스(-) 성장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임.

<표 IV-37> 長期火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1,133 | 882   | 648   | 441   | 307   | 259      | 231      |
| 증 가 율 | -18.9 | -22.1 | -26.5 | -31.9 | -30.3 | -15.6    | -10.8    |

2) 長期傷害保險(年金包含)

- FY'98 收入保險料는 장기간병보험 등 신규영역 진출과 금융형 상품 및 運轉者保險 등 각사 단독상품의 판매호조로 전년대비 30.6% 증가한 6조 7,940억원에 이를 展望임.

<표 IV-38> 長期傷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보<br>험<br>료 | 일반    | 11,791 | 13,376 | 12,972 | 22,488 | 30,875   | 42,605   |
|             | 연금    | -      | -      | 3,631  | 7,163  | 8,719    | 9,406    |
|             | 계     | 11,791 | 13,376 | 16,603 | 29,651 | 39,594   | 52,011   |
| 증가율         | 38.4  | 13.4   | 24.1   | 78.6   | 33.5   | 31.4     | 30.6     |

- FY'95에 97%의 고성장을 나타낸 바 있는 個人年金損害保險은 FY'96에 는 성장율이 21.7%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체적인 연금 시장의 성장둔화추세 및 생명보험의 강세에 따라 계속될 전망임.

- 그러나 개인연금손해보험은 월납 및 3월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年金保險의 特性上 中途解止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

로 繼續保險料의 지속적 增加가 예상됨.

- 이에 따라 FY'98의 경우 損害保險 중 個人年金保險만의 실적이 1조 원대에 이를 展望임.

- 한편 '98년부터 도입예정인 退職年金保險은 주로 그룹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손보사에게는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3) 長期綜合保險

- FY'98 收入保險料는 보험계약자의 니드에 맞춘 종합담보상품의 개발과 非課稅 家計長期貯蓄保險 등 금융형상품의 판매호조로 전년대비 56.0% 증가한 3조 319억원에 이를 展望임.

<표 IV-39> 長期綜合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FY'97(P) | FY'98(E) |
|-------|-------|-------|-------|-------|--------|----------|----------|
| 수입보험료 | 4,369 | 5,650 | 6,321 | 7,663 | 12,572 | 19,438   | 30,319   |
| 증 가 율 | 60.5  | 29.3  | 11.9  | 21.2  | 64.1   | 54.6     | 5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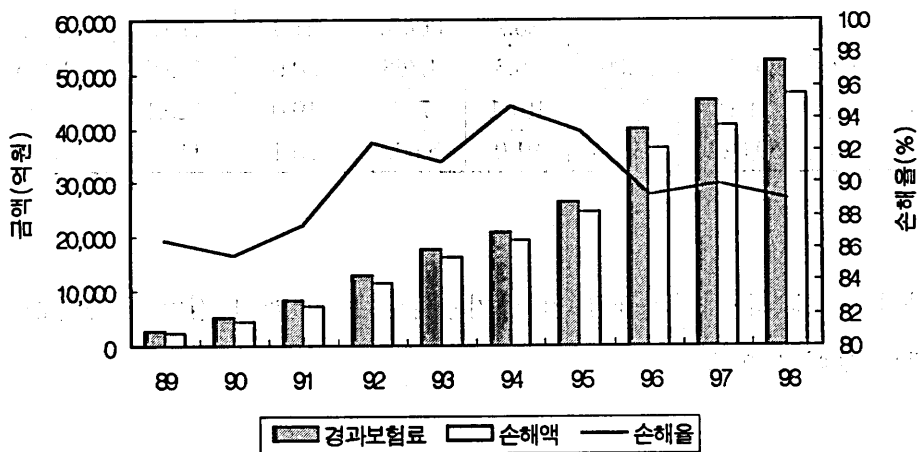
- 상품 성격상 중도해지 발생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과세가계장기저 축보험 등 금융형상품의 판매호조, 보험계약자의 니드에 맞춘 각종 신규 위험상품의 개발, 과거 長期火災保險으로 부보되던 물건의 長期綜合保險으로의 轉換 등에 따라 장기종합보험은 향후 큰폭으로 성장할 展望임.

(나) 損害率 推移

○ FY'97, FY'98의 손해율은 최근년도의 감속추세를 반영하여 90% 내외에서 安定될 것으로 보임.

- FY'96 損害率은 89.0%로서 최근 4개년(FY'93-FY'96)의 平均損害率(90.7%)을 하회하여 損害率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를 種목별로 살펴보면 장기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감소속에 손해율악화추세를 지속하는 데 비해 장기상해보험,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계성보험의 屬性上 손해율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보험료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장기종합보험의 경우 재물손해분야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으나 담보위험들이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전체적인 손해율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그림 IV-34> 長期保險 損害率 推移



(다) 保險營業收支

- 금융형상품의 판매호조 및 퇴직연금보험의 도입에 따라 전체 收入保險料는 지속적 增加勢를 시현할 것이며 保險營業利益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표 IV-40> 長期損害保險 事業實績

(단위: 억원, %)

| 구 분     | 보유경과<br>보험료 | 손해액    | 손해율    | 사업비   | 사업비율   | 합산비율  | 보험영업<br>이익 |        |
|---------|-------------|--------|--------|-------|--------|-------|------------|--------|
| FY'92   | 15,872      | 14,678 | 92.5   | 3,070 | 17.8   | 110.3 | -1,875     |        |
| FY'93   | 21,258      | 19,392 | 91.2   | 3,826 | 19.2   | 110.4 | -1,960     |        |
| FY'94   | 장기          | 21,868 | 20,726 | 94.8  | 4,356  | 21.9  | 116.7      | -3,214 |
|         | 연금          | 3,598  | 2,546  | 70.8  | 981    | 27.0  | 97.8       | 70     |
|         | 소계          | 25,466 | 23,272 | 91.4  | 5,337  | 23.0  | 114.4      | -3,144 |
| FY'95   | 장기          | 30,674 | 28,625 | 93.3  | 5,563  | 18.2  | 111.5      | -3,514 |
|         | 연금          | 7,143  | 5,147  | 72.0  | 1,578  | 22.0  | 94.0       | 387    |
|         | 소계          | 37,817 | 33,772 | 89.3  | 7,141  | 18.9  | 108.2      | -3,127 |
| FY'96   | 장기          | 43,579 | 38,669 | 88.7  | 9,669  | 22.1  | 110.8      | -4,759 |
|         | 연금          | 8,753  | 7,748  | 88.5  | 1,762  | 20.2  | 108.7      | -848   |
|         | 소계          | 52,332 | 46,417 | 88.7  | 11,431 | 21.8  | 110.5      | -5,607 |
| '97.4-8 | 장기          | 23,614 | 21,092 | 89.3  | 4,868  | 20.6  | 109.9      | -2,345 |
|         | 연금          | 3,882  | 3,925  | 101.1 | 739    | 19.0  | 120.1      | -781   |
|         | 소계          | 59,022 | 25,017 | 91.0  | 5,607  | 20.4  | 111.4      | -3,126 |

- 한편 同保險의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FY'96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V-41> 長期保險 解止 및 滿期還給金 推移

(단위: 억원, %)

| 구 분            | FY'92            | FY'93            | FY'94            | FY'95            | FY'96            | '97.4-7         |
|----------------|------------------|------------------|------------------|------------------|------------------|-----------------|
| 해지환급금<br>(증가율) | 7,797<br>(83.8)  | 10,957<br>(40.5) | 10,756<br>(-1.8) | 8,617<br>(-19.9) | 11,737<br>(36.2) | 5,359<br>(80.9) |
| 만기환급금<br>(증가율) | 2,384<br>(39.8)  | 4,156<br>(74.3)  | 5,166<br>(24.3)  | 6,937<br>(34.3)  | 9,676<br>(39.5)  | 3,470<br>(47.5) |
| 합 계<br>(증가율)   | 10,181<br>(71.2) | 15,113<br>(48.4) | 15,922<br>(5.4)  | 15,554<br>(-2.3) | 21,413<br>(37.7) | 8,829<br>(55.7) |

註: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